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 전공

현 정 화

2014年 2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 덕 순

현 정 화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年 2月

**A study on measur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females in local politics**

-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Jeong-Hwa,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Duk-Soon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3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 1 절 여성과 지방정치참여	7
1. 지방의회의 의의	7
2.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8
제 2 절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12
1. 선거제도	12
2.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17
3.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	23
제 3 절 해외사례 고찰	38
1. 여성활당제	38
2. 비례대표제	40
3. 중선거구제	42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43
III. 연구설계	45
제 1 절 조사설계	45
1. 연구 분석틀 설정	45
2. 변수 설정 및 설문지 구성	46
3. 가설 설정	49
제 2 절 연구방법	50
1. 조사대상	50
2. 자료 수집	51
3. 분석방법	51

IV. 분석결과 및 활성화 방안	53
제 1 절 실증조사 결과	53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53
2. 정치 관심도	54
3.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관련	70
4.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83
제 2 절 가설 검증	92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92
2. 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94
제 3 절 면접조사(인터뷰) 결과	97
1. 인터뷰의 목적 및 자료 수집	97
2. 질문내용 및 분석방법	97
3.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9
4. 인터뷰내용 분석 결과	100
제 4 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112
1. 제도적 차원	112
2. 사회·문화의식적 차원	113
V. 결론	116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116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0
【ABSTRACT】	124
【설문지 1: 인식조사】	128
【설문지 2: 면접조사】	133

표 차례

<표 2-1> 여성할당제의 형태	13
<표 2-2> 역대 지방선거 주요 제도 변화	23
<표 2-3> 역대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24
<표 2-4> 역대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25
<표 2-5> 역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26
<표 2-6>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국 정당별 후보자수	28
<표 2-7>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성별 전국 당선자 수	29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30
<표 2-9> 2010년 제주지역 광역의원 지역구별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31
<표 2-10> 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	32
<표 2-11> 2010년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 현황	32
<표 2-12> 2010년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 현황	33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34
<표 2-14>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총괄 현황	35
<표 2-15>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 현황	35
<표 2-1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 운영상황	36
<표 2-17> 스웨덴의 정당할당제도	39
<표 3-1> 변수의 구성	47
<표 3-2> 조사도구(설문지)의 구성내용	48
<표 3-3> 면접조사 질문 구성	49
<표 3-4> 지역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51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53
<표 4-2> 정치관심도 지표의 기술통계량	55
<표 4-3> 언론매체를 통한 정치면에 대한 관심 차이	56
<표 4-4> 정치에 관한 대화 빈도 차이	57
<표 4-5>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차이	59
<표 4-6>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 차이	60
<표 4-7> 특정 후보자·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 차이	62

<표 4-8> 선거기간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경험 차이	63
<표 4-9> 선거기간 중 정당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차이	65
<표 4-10>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	66
<표 4-11> 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차이	68
<표 4-12> 투표 참여 적극성에 대한 차이	69
<표 4-13> 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한 견해	71
<표 4-14>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72
<표 4-15>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74
<표 4-16>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76
<표 4-17>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78
<표 4-18>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80
<표 4-19>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82
<표 4-2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84
<표 4-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85
<표 4-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비례대표 인지 여부	87
<표 4-23>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90
<표 4-2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92
<표 4-25> 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95
<표 4-26> 면접조사 질문내용	97
<표 4-27> 서비스 공급기관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9
<표 4-28>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100
<표 4-29>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인터뷰내용	101
<표 4-30>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103
<표 4-31>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인터뷰내용	103
<표 4-32> 선거운동과정 문제점	105
<표 4-33>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 인터뷰내용	106
<표 4-34> 선거운동과정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문	108
<표 4-35>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문 인터뷰내용	108
<표 4-36>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109
<표 4-37>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인터뷰내용	110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4
[그림 1-2] 연구의 과정	6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46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는 과거부터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하기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광역의회만 존재하는 특성상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주체적 성향 및 기대되는 역할과 동떨어진 결과로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도민 인식조사는 인구사회적 특성,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고,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여성의 정치분야 진입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 확대방안을 인터뷰하여 내용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관심도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거주지는 9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치참여 경험은 8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학력에 따른 인식차이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6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3개 문항), 학력(2개 문항), 가계소득(2개 문항)

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성별은 4개 문항에서, 거주지는 3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2개 문항), 정치참여 의향(2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를 면접 조사한 결과, 전·현직 여성의원은 전문성, 정치자금, 마인드 및 공직 우선시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성정당인의 경우 공정한 공천과 역량 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현직 여성의원은 자금운용능력과 조직력 부족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지적하였고, 여성정당인의 경우 가족들의 지지 부족, 다양한 멘토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여섯째,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 모두 여성 정치의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외에는 전·현직 의원의 경우, 여성후보자 공천여건 조성 필요,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을 제안하였고, 여성정당인의 경우 지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 보육의 공공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의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 차원과 사회·문화의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제도적 차원으로는 첫째,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여성정치인 육성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동반 선출제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인식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및 차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현직 여성의원의 사회공헌 확대 및 의정활동 이슈화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정치인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과 면접조사를 병행한 연구로서 실증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여성 정치참여시 장애요소, 필요요소 등을 실제 정치참여 경험이 있거나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여성, 지방의회,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I.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논의를 지방자치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지방정치참여의 의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흔히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 중 가장 낮은 부분은 의사결정 참여 부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에 의하면 여성이 정치부문 즉 국회의원으로 참여는 2004년 이후 13%를 넘어섰으나, 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 평균 19.1%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여성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예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성의 정치력이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¹⁾.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명실·김혜연, 2005). 과거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극히 낮아서 1948년 초대부터 1992년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이며, 그 중 제주지역은 0%였다. 17대 국회(2004년)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10명, 전국구 29명 등 총 39명(13%)의 여성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여성의원 비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제주지역도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성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였고, 지방의회의 경우, 현재²⁾까지 비례대표직으로만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 아이슬란드의 최초 민선 여성대통령인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필리핀의 아키노 전 대통령, 세계 최초 여성 수상인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 일본의 사회당 당수인 도이 여사,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이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된 바가 있다.
2) 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은 1995년 1명, 1998년 1명, 2002년 2명, 2006년 5명, 2010년 5명임.

제주지역은 과거부터 여성주도형 농어업사회였다. 특히 제주해녀공동체는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책공동체 및 경제활동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제주의 여성은 의존적이기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³⁾은 높은 반면, 공직 진출 및 고위직 진입에서의 유리천장은 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한 반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직 및 고위직으로서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반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여성이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짐에 따라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광역의원 14.8%, 기초의원 21.6%인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의원 12.2%⁵⁾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모두 비례대표직이며, 선출직 여성의원은 한명도 없다. 이는 제주지역 여성의 위상 및 기대되는 역할과 동떨어진 결과로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타지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낮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및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3) 행정구역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3년 11월 기준)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경제활동참가율
계	51.0	광주	50.9	충남	52.3
제주	61.0%	대전	48.6	전북	47.9
서울	53.1	울산	40.4	전남	53.2
부산	47.5	경기	49.9	경북	54.7
대구	50.3	강원	48.2	경남	50.8
인천	52.1	충북	53.1	-	-

출처: 국가통계포털 고용통계(kosis.kr)

4) “제주도 여성공무원 비중 전국 꼴찌”(제주의소리, 2013년 10월 25일 기사), “여성교원 증가 불구 고위직 낮아”(제민일보, 2013년 10월 25일 기사)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 41석(선출직 29석, 비례대표 7석, 교육의원 5석) 중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5석임.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성의 지방정치참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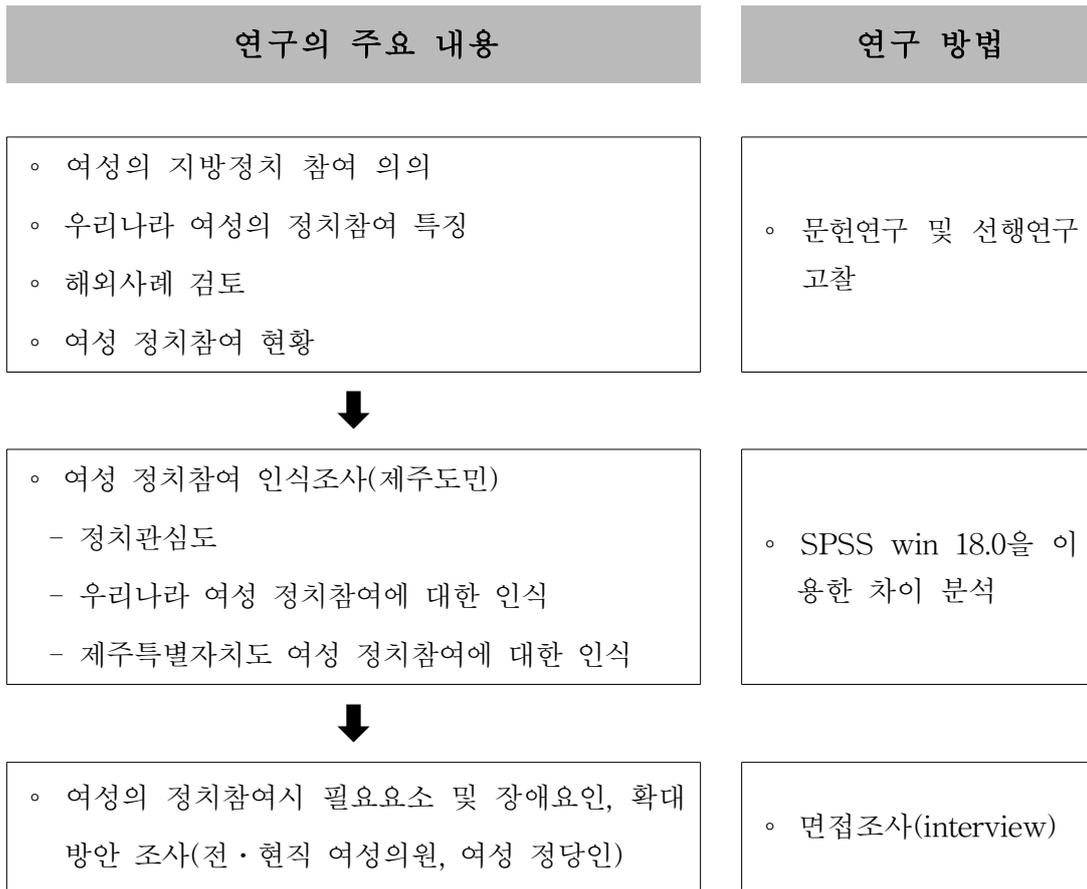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의의, 여성 정치참여 여건, 여성 정치참여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 정치참여 특징에서는 선거제도, 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 여성 정치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사례를 검토하였다.

둘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조건 및 장애요인,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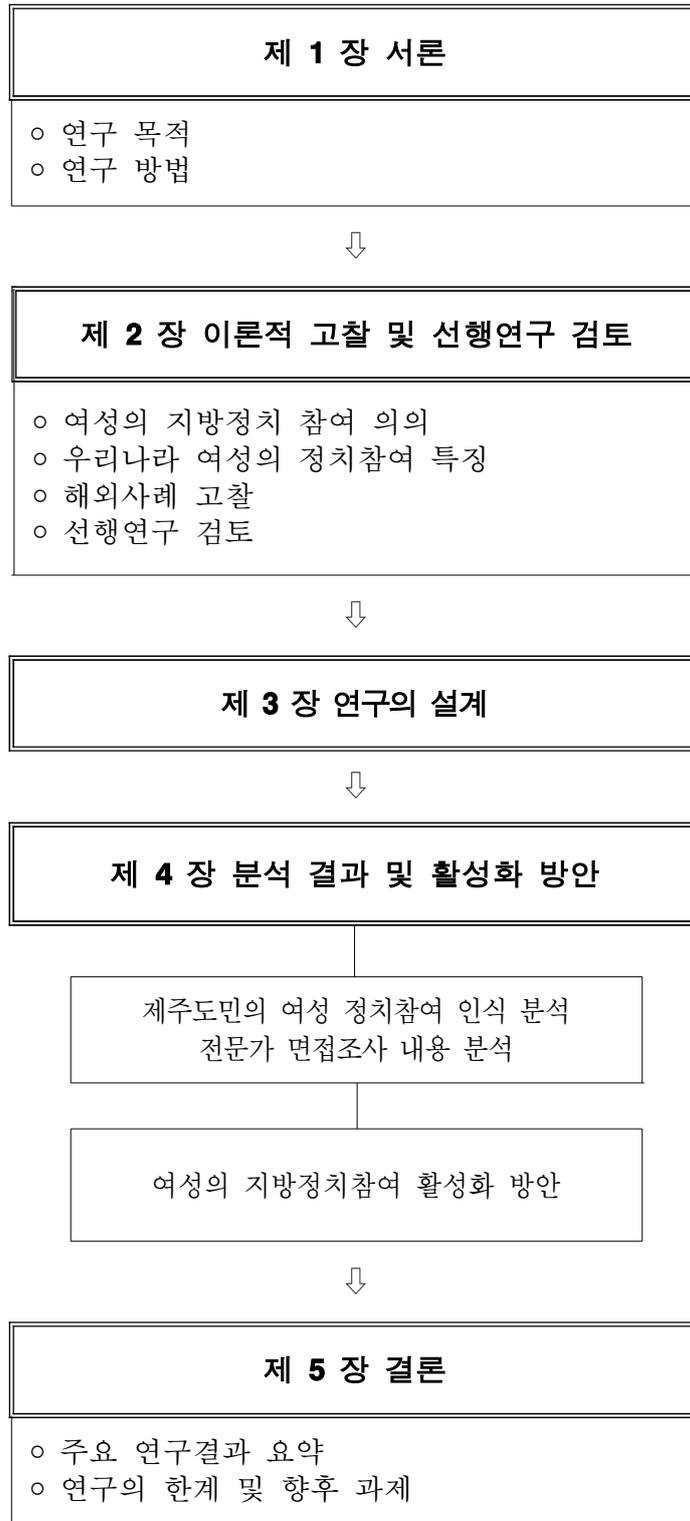
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의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연구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실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민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 정당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여성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장애요인, 확대방안 등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과정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여성과 지방정치참여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관심사항을 그들의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결정·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특정인’의 그리고 ‘중앙’의 독점물인 것으로만 여겨져 온 정치를 그 동안 배제되었던 ‘지방’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박옥순, 2010 재인용). 즉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시킴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기우, 1995).

지방정치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운영되는 지방정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자신들이 해나갈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지방정치는 중앙정치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정치적 욕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정치를 통해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민의 삶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지방정치는 경험이 부족한 정치지방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정치훈련의 무대이다(정미선, 2010).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집단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주민대

표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민주선거를 통하여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분석·체계화 하여 이를 지방의 정치·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의 제 영역에 반영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에 언제나 전체 주민의 대표라는 인식 하에 부분의사와 전체의사를 구분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유삼열, 1991).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의 이익과 의사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한편 의원들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할 정치·윤리적 의무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마련될 때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다(조현수, 2005).

2.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 즉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의 필요성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기회의 균등이나 다수결원칙, 인간 존중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바크라크(Bachrach)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공의 이익은 폭 넓은 대중 참여에 의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배제는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여성이 과소 대표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이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라스웰(Lasswell)이 지적한 정치에 있어 ‘어떻게’, ‘언제’의 문제보다 ‘누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느냐가 정치참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누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민주정치의 이념과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규범 외에도 여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정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 또 다

른 정치스타일, 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찬성하고, 확대하기를 주장하는 근거도 존재한다. 즉,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전통적 역할 때문에 정치적이고 공적인 영역에 진입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 관심분야도 환경보호나 사회복지, 빈곤, 물가 등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이승희, 1993). 실제 공직에서의 활동내용을 보면 여성이 여성관련 법안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정치가에 의한 여성 이익 대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정치와 생활영역의 문제는 여성정치인에 의해 보다 잘 대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경험론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박혜자, 2000).

또한 정치권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존재함으로써, 오늘날 정치가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대안적 연구도 실행되고 있다. 남성지배의 정치는 가부장적 정치구조와 권력 나눠 먹기 식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성, 비윤리성의 문제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이론의 원리적이고 규범적 측면이나, 남성과 다른 여성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체제·국가의 정치발전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인데 손봉숙과 조기숙은 ‘여성이 작게는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는 차별 없는 전 인류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손봉숙·조기숙, 1995).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 정책을 다루는데는 주로 선거, 국제사회의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 여성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를 처리하는 이해 당사자에 의해 변화, 왜곡되기도 한다. 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선출직에 여성들이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출직 여성의원들의 확대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정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는 여성단체장, 여성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원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여성 관련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지방자치시대에 주역을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찾아보면 첫째, 여성은 정치적 동기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여성은 지역의 지도자가 “정치가”라기보다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권력욕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출마한다. 정당원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사회봉사를 위해 정당활동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둘째, 여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탁자”라기보다는 주민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자”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의 간접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면 자신을 “대리자”로 간주하는 여성의원은 이 목표에 보다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의원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소비하며 더 열심히 활동에 임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래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여성에게 더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리고 소수자로서의 위치가 “여성 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사실이다. 여성은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힌 경험을 살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다. 지방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생활 정치의 쟁점들은 여성들의 전문분야로 인식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생활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2세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한 보호, 어린이 양육, 학교교육,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복지시설, 쓰레기 처리, 깨끗한 공기와 물의 보급, 도

시가스 보급, 버스노선(특히 마을버스), 병원 또는 보건소 방문 등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이 가정생활을 운영하면서 당면하는 과제들이다. 이런 점에서 생활영역을 담당하는 여성들이야말로 생활자의 요구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실현해야 할 생활정치 실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주체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로서 그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현실점은 바로 여성의 생활정치참여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여성의 정치참여 특징

1. 선거제도

1) 여성할당제

여성 할당제(Gender Quota System)란 잠정적인 우대조치의 하나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안진희, 2010). 여성할당제는 대상, 법적 구속력의 정도, 자격요건의 관련 여부, 쿼터 크기의 기준, 적용영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개념 정의도 달라진다(김선욱, 1997). 즉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약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으로써 과거 차별의 결과를 교정하거나 차별 받는 그룹의 특수한 요구를 보충하는 과정이며,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전에는 여성에게 폐쇄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통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노력이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건 형성의 의지와 변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여성 상황을 고려한 평등 촉진 정책이다. 현재의 정치·사회·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려면 지금까지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영향으로 현재 여성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어야 하며 제안된 조치가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대부분 파악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힘든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차별을 구조적 차별이라 하며,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치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고위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지위,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이 적은 것으로 입증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하여

특히 정치, 고용, 교육부분에서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비율의 자리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할당제가 다루어지며 이에 의해서만 각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촉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할당제는 현존하는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필요한 조치이다. 즉 할당제는 평등이 실현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치이다. 그러므로 할당제 규정의 성격은 임시적이며 한시적이다. 물론 할당제가 실시되는 개별 영역 마다 여성차별 상황이 같지 않으므로 그 시한도 각기 다를 수 있다.

할당제를 뜻하는 “Quota”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몫, 배당, 지분을 의미한다.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1) 여성할당제의 형태

여성할당제는 <표 2-1>에서와 같이 구분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외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선거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2-1> 여성할당제의 형태

구분	형태	
자격	자격무관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비율을 이행.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비율을 정하여 어느 한 성이 대표성에 못미치는 경우 그 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명하는 방법.
	동일자격 시 우선적 고려 할당제	자격에 관해 남녀 구분 없이 평가하고 동일한 자격일 경우 지금까지 대표성이 부족했던 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
법적효과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확정된 할당률과 목표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규제, 감독 등으로 강제화.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기업, 정당 등에 대해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재정적 이익, 조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

구분	형태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방침	정부의 지침, 행정지도를 통해 할당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영향을 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자발적인 실시를 유도.
목표 할당제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위나 직위에 여성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입법자는 목표율만 정해주고 집행에 대해 적용은 개별적으로 위임.	
확정 할당제	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서 대표성이 낙후된 성에 대해 할당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선 고려를 통해 결정.	

출처: 곽형대(2006). 여성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가) 자격과 관련된 할당제

일정률의 여성을 확보함에 있어 그 직위나 자리에 자격요건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여성 할당제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첫째, 자격무관할당제로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그 비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다. 둘째, 최소자격요건 할당제로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어느 한 성이 대표성에 못미치는 경우, 그 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명하는 방법이다. 셋째, 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로서 그 직의 임명이나 인사 결정시의 고려에서 비율을 정하고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남녀 구분 없이 평가하되,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대표성이 부족했던 성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다. 넷째, 동일가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할당제로서 세 번째의 동일한 자격대신 ‘동일한 가치’의 자격만이 다르다. 세 번째의 동일한 자격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자격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과 법적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동일한 가치’의 자격이 더 적합한 개념이라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위의 형태들은 우리나라의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의 도입에 활용되었다(곽형대, 2006).

(나) 법적 효력과 관련된 할당제

법적 효력과 관련된 할당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로서 확정된 할당률이나 목표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따르는 형태로 명령적 할당제라고도 한다. 둘째,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로서 국가가 기업 등에서 효과적인 여성 지원 조치로서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재정적 이익, 조세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셋째,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할당제로서 이는 할당제의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영향을 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이 따른다(곽형대, 2006).

(다) 목표여성 할당제와 확정 여성 할당제

이는 할당제의 실현이 점진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결정 당시에 영향을 갖는가에 따른 구별이다. 첫째, 목표할당제로서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위나 직위에 여성이 일정 비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목표율만 정해주고 그 집행에 대하여는 각 적용 영역의 개별 규정에 위임하는 방법이다. 둘째, 확정할당제로서 채용이나 피교육자 선정 등에서 남녀 할당을 정하고 지금까지 대표성이 낙후된 성에 대하여 할당 목표제가 도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공무원 채용 할당제와 정부 위원회 여성 할당제 등에서 목표할당제를 채택하여 그 목표율을 꾸준히 상승 시켜나가고 있다(곽형대, 2006).

2)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서, 개정 공직선거법 중 여성의 의회진출에 가장 기여한 조항이 바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도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비례대표제를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 추천제를 도입하여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은 2006년 선거결과 여성의 비약적 의회진출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

6) 이는 강행규정으로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⁷⁾에 비해 비례대표제⁸⁾가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man, 2002; Rowling, 2004).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성 지배적인 정치문화와 정당조직,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로 인해 지역구 활동에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당에 투표하게 되는 비례대표제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하는 것이다.

3) 중선거구제

선거구의 크기에 관한 논의는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기존의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당선비율이 낮았던 원인 중의 하나가 소선거구제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조갑련, 2013).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전환되어 다수의 여성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2010년 제5차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을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하면서 위반시에는 등록무효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선거구의 광역화는 외형적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 선택의 외연을 넓혀 정당구도의 변화를 노정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치신인의 의회진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주의 극복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여성의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7)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8)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원외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비례대표제 덕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이 44년 만에 원내에 처음 진출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약진 의의”, 스포츠서울 기사, 2004년 4월 15일)

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안진희, 2010 재인용)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여성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유권자들이 다수의 투표를 하게 될 때에는 여성에게 일종의 성평등 지향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중선거구제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2~3명 또는 그 이상의 복수 공천을 하기 때문에 후보공천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성후보자의 공천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정당이 주저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제에서는 여성후보자의 공천이 훨씬 쉽고 여성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의회에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의회가 없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2.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1) 사회적 저해 요인

(1) 성 역할의 고착화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성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세가 높지 않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뿌리 깊은 고착화이다.

성 차별은 하나의 성이 다른 성에 의해 열등시 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성역할에 의해 나타난다. 즉 성 역할이란 남녀를 구분시키는 특징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된 신념(I. K. Broverman, 1972)으로 이러한 합의된 신념은 남녀의 생리학적·해부학적 차이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따르는 기질, 성격, 능력의 차이를 상정해서 권리, 특권, 노동, 의무 등을 분리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성 역할 행동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즉 남자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며, 여자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가사일과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갖는다(이춘호, 1985).

이러한 성 역할의 차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 역할에 의한 성 차별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여성관은 가정의 영역 내에 여성의 활동범위를 국한시키고 있으며, 권력의 배타적 속성상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교적 사고가 잔재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사회적 인습의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이영애, 1995).

또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부터 정치는 남자가 하는 것으로 남녀역할에 대한 태도를 인식시켜 왔기에 유권자들은 능력을 구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남녀 구별없이 대부분 남성후보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의 낙선이 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누락시켜 왔다(장성자, 1994).

이와 같이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과 역할이 가정과 가족 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2) 가부장제적 사회구조

근대 시민사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평등은 정치적 평등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시민은 출생에 따른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제력을 가진 남성만이 정치권력을 소유해왔고, 여성은 남성의 부속된 하나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근대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귀족의 지배를 없앴으나 남성의 지배는 계속 유지시켰고, 여성은 가난한 남성, 유색인종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정치이며, 현재의 정치판도는 남성지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희, 1993).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해방론자들의 경우는 여성문제의 핵심이 여성의 예측과 억압을 근본구조로 하는 가부장제와 그 문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정의숙, 1985). 가부장적 문화란 바로 열등권 곧 남성우월권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고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 영역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여성들은 마

치 공기를 마시고 살 듯 남성우월성과 여성열등성에 대한 깊은 비판적 성찰 없이 살아온 것이다(주준희, 1989).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가부장적인 제도와 규범, 가치관은 산업화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윤리적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고 여성의 최우선적 임무가 가정에서의 역할 즉, 가정주부라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가족범이나 직장 내에서의 차별은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Marian Palley, 1998).

(3) 여성의 정치사회화 의식 결여

정치사회화란 정치적인 역할을 배우기 위해 훈련되는 방법으로 한 개인이 정치에 끌려들어 가는 과정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회성원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형성해 가는 학습과정이라 하겠다. 즉, 각 개인이 그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치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치적 태도 및 가치, 이데올로기를 습득하는 과정인 것이다(G. A Almond, 1960).

여성 자신을 정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동기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평생 동안 체험되는 이와 같은 정치 사회화 과정이다(김재영 외, 1990). 여성의 정치사회화를 중요한 문제로 보는 까닭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불평등한 상태이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특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고, 가장 남성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생활인 정치 분야에서 더욱 소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정치참여에 있어서 소외된 이유는 여성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과정에서 탈정치화의 경향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유혜숙, 1994). 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남성은 정치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 정당에 대한 정향, 정책결정과 정치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에 관한 것을 얻게 되는 반면에 여성은 이러한 정치사회화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다른 가치나 태도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여자다움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박홍식, 1996).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원인은 단순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역할로 사회화됨으로써 오는 자아 규정, 가치, 태도의 내면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문화이론에서 말하는 마지널리티(Marginality, 중요하지 않은·주변적인), 양문화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배워온 부드럽고 감싸주는 여성적 태도와 정치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나서서 투쟁하며 때로는 비윤리적인 필요성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여성정치가를 대하는 남성들도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데, 여성이 어떻게 정치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면서 막상 여성정치가가 남성과 다름없는 어려운 일을 해내면 여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남성에 대해서는 공격적도와 사적적도가 따로 적용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공격활동도 사적적도로 평가된다(주준희, 1998). 이같은 현상은 유교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관계인 것처럼 강화되어 왔다.

2) 정치적 저해 요인

(1) 유교적 정치문화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정치 분야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한국의 유교적 정치문화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강한 사회구조 아래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정치는 남성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 내 모든 구성원에게 뿌리내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 또한 이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과거 우리의 정치는 부정부패, 당리당락, 권모술수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선뜻 후보로 나서기를 꺼리게 되어 여성후보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장성자, 1994).

유교적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활동이 저조한 반면, 평등 지향적 정치문화를 지닌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 사회 내 모든 정당이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슷한 민주체

제 하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정치문화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진, 2000).

(2) 권위적 남성중심의 정치구조

우리의 정치과정을 추적해 보거나 정치인의 증원통로인 선거관행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력은 남성중심의 소수 직업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한국적 권력관계의 현실에서 비공식적인 막후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책결정 채널에 의존하기보다 핵심지도층끼리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폐쇄적으로 결정한다(한국정치연구소, 1991).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세계는 남성들의 생활양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남성적인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초하고 있는, 즉 남성문화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남성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또는 남성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정치무대에서 남성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성문화를 나름의 방식대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박홍식, 1996).

3) 제도적 저해 요인

(1) 선거제도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2006년부터 기초의회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투표자의 선택은 같은 정당의 후보자 가운데 누가 좋은가를 투표할 수 없고 다만, 정당에서 이미 공천된 후보자를 지지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자를 경쟁적 상황에 감히 공천할 엄두를 못내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2-3명 또는 그 이상의 복수공천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자 한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자는 선택의 여지를 보

다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은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여성후보자를 공천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투표자의 입장에서는 남녀의 선택도 가능하며, 여성이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윤정석, 1991).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당선률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김희준, 1993).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선출하기 때문에 사표를 방지하기 어렵고, 선거가 정실에 치우쳐 과열되기 쉬우며,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에 더하여 정책보다는 알려진 인물에 유리하여 여성 후보자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한다(이은재, 2001). 제주지역의 경우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 상황으로서 중·대선거구제를 광역의회까지 확대하는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선거자금

의회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선거자금은 여성의 정치입문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은 선거를 위한 자금 동원력 면에서 남성보다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여성이 당선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인 채널을 통해 정치 및 선거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자금 조달의 제약은 여성들에게 정치참여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 후보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남편이나 친척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선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달하더라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한 고비용의 선거구조 하에서는 정치에 나서려는 여성후보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여성의 의회 진출이 저조한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김지양, 1998).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규정된 기초의회 기탁금은 200만원, 광역의회 기탁금은 300만원인데, 이 액수가 지방의회에 뜻을 두고 있는 여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선거비용은 경제력에서 열세에 있는 여성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도 영국의 경우처럼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초보 여성정치 지방 자들에게 정당차원에서 후원해 주고, 여성정치참여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정치인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선거자금을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자에게 지원 한다면 우리나라도 더 많은 여성들이 출마하고 당선될 것이다.

3.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

1) 일반 현황

역대 지방선거의 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가 광역의회의원선거에 도입되었고, 광역의회선거에서 50% 여성의무공천제와 순위 2인마다 여성 1인 명부작성 의무(위반시 명부 등록 무효)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30%를 여성의원으로 공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제4차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 50% 여성의무공천제도가 기초의회까지 확대되었고, 기초의회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제5차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와 여성의무공천제도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규정이 광역의회 선거만 적용되던 것을 기초의회까지 확대하였고, 정당의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을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하면서 위반시에는 등록무효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표 2-2> 역대 지방선거 주요 제도 변화

구분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제3차 (2002)	비례대표제	광역의회선거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제(광역의회선거) - 순위 2인마다 여성 1인 명부작성 의무 -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광역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광역의회선거 도입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30% 정당공천 권고 - 준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인센티브
제4차 (2006)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선거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제(광역·기초의회) - 정당명부 할수 의무 배정제도 도입 -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광역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기초의회선거 도입	-

구분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선거 도입	-
제5차 (2010)	비례대표제	광역, 기초선거 유지	- 50% 공천, 홀수순번배정 의무제 유지 - 위반시 명부 등록무효 규정에 기초의회선거 포함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광역, 기초선거 유지	- 정당의 지역구 후보추천 여성할당 의무제 - 위반시 후보자 등록 무효
	중대선거구제	정당추천 후보 기호배정에 정당자율권 부여	

출처: 황아란·서복경(2011), p. 102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이 여성의 대표성에 미친 영향은 연도별 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수 및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비율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제1차 지방선거에서 제3차까지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4차 선거에서 조금 큰 폭의 상승 모습을 보였고, 2010년 제5차 지방선거에 들어서는 광역-기초의원 모두 2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5차 지방선거에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서, 각 당이 이에 대응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 역대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전체		여성		여성/전체 (%)	
1995	지역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례		178		79		44.3		97		43		44.3
1998	지역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례		180		54		30		74		27		36.5
2002	지역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	지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역구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2010 지역구 비례	1,779		154		8.6		680		55		8.1
2,046		333		16.4		781		113		14.8		
2010 지역구 비례	267		179		67.0		81		58		71.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기초의원의 경우, 1995년 제1차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및 여성 당선자 비율은 전체의원 중 2% 이내에 그치고 있으나, 여성할당제 시행 후인 2006년 제4차 지방선거에서는 4.4%, 2010년에는 10.9%로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총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9.4%를 차지하였고,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2006년 4.4%에서 10.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표 2-4> 역대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		전체		여성		여성/전체 (%)	
1995	11,970		206		1.7		4,541		71		1.6	
1998	7,450		140		1.9		3,490		56		1.6	
2002	8,373		222		2.7		3,485		77		2.2	
2006 지역구 비례	9,020		1,141		12.6		888		437		15.1	
	7,995		391		4.9		2,513		110		4.4	
2010 지역구 비례	5,862		552		9.4		2,512		274		10.9	
	6,781		1,281		18.8		2,888		625		21.6	
2010 지역구 비례	267		750		73.2		375		327		87.2	
	919		729		80.0		376		351		93.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제5차 지방선거(2010. 06. 02)에서 전체 후보자 267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79명(67.1%)로 가장 높았으며, 제2차 지방선거(1998. 06. 04)에서 전체 후보자 180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54명(30%)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 당선자 수의 경우, 제4차 지방선거(2006. 05. 31)에서 전체 당선자 78명 중 여성 당선자 수가 57명(73.1%)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2차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74명 중 여성 당선자 수가 27명(3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1~2차 선거에 비해 3회 선거부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수와 여성 당선자수가 높아진 것은 2002년 여성 50% 공천 비례대표제의 개정 결과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2-5> 역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후보자수			당선자 수			광역의원 수		
	총수	여성수	비율(%)	총수	여성수	비율(%)	총수	여성수	비율(%)
제1차 (1995)	178	79	44.3	97	43	44.3	874	-	971
제2차 (1998)	180	54	30.0	74	27	36.5	616	-	690
제3차 (2002)	209	116	55.5	73	49	67.1	609	-	682
제4차 (2006)	211	136	64.5	78	57	73.1	655	5	738
제5차 (2010)	267	179	67.0	81	58	71.6	680	82	84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국 정당별 후보자 수를 살펴보면 전국 266명 중 경기도가 35명(13.2%)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는 전체 9명(3.4%)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중 여성 후보자 수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266명 중 179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79명 중 서울특별시가 20명(11.2%)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가 각각 8명(4.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47명(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민주당 31명(17.3%), 민주노동당 22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16명 중 여성이 16명(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평화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9명 중 여성이 8명(88.9%)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창조한국당과 국민중심연합은 여성 후보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후보자가 정당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표 2-6>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국 정당별 후보자수

시도	계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서울	34	20	10	6	8	4	2	1	5	3	0	0	2	1	0	0	2	1	2	1	1	1	1	1	1	1
부산	14	8	5	3	2	1	0	0	2	1	0	0	2	1	0	0	2	1	0	0	1	1	0	0	0	0
대구	14	11	3	2	2	1	1	1	1	1	0	0	1	1	0	0	2	1	1	1	1	1	2	2	0	0
인천	11	10	3	2	2	2	1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광주	12	10	2	2	3	2	0	0	1	1	0	0	2	1	0	0	2	2	0	0	1	1	0	0	1	1
대전	12	11	3	3	2	2	2	1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울산	9	8	3	3	0	0	0	0	2	1	0	0	1	1	0	0	1	1	1	1	1	1	0	0	0	0
경기	35	18	12	6	10	5	2	1	2	1	0	0	2	1	0	0	4	2	2	1	1	1	0	0	0	0
강원	10	8	4	3	2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0	0
충북	14	9	3	2	2	1	2	1	2	1	0	0	1	1	0	0	1	1	2	1	1	1	0	0	0	0
충남	15	10	2	1	2	1	4	2	2	2	0	0	1	1	0	0	1	1	2	1	1	1	0	0	0	0
전북	13	8	2	1	4	2	0	0	2	1	0	0	2	1	0	0	1	1	0	0	1	1	0	0	1	1
전남	19	12	2	2	6	3	0	0	4	2	0	0	1	1	0	0	2	1	0	0	1	1	0	0	3	2
경북	17	9	5	2	2	1	0	0	2	1	0	0	1	1	0	0	2	1	2	1	1	1	2	1	0	0
경남	18	15	5	5	2	2	2	1	3	3	0	0	2	1	0	0	2	1	0	0	1	1	1	1	0	0
제주	19	12	7	4	5	3	0	0	2	1	0	0	1	1	0	0	2	1	0	0	1	1	0	0	1	1
합계	266	179	71	47	54	31	16	9	33	22	0	0	22	16	0	0	27	18	12	7	16	16	6	5	9	8
여성비율	67.3		66.2		57.4		56.3		66.7		0.0		72.7		0.0		66.7		58.3		100		85.3		88.9	

출처: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비율 50%가 적용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성별 전국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당선자 81명 중 여성 당선자는 58명(7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당선자 5명 중 여성이 5명(100%),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당선자 3명 중 여성이 3명(100%)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도는 전체 당선자 12명 중 여성이 7명(58.3%)으로 전국에서 여성 당선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성별 전국 당선자 수

시도명	당선자수(명)	성별		여성 당선자 비율(%)
		남	여	
서울	10	4	6	60.0
부산	5	2	3	60.0
대구	3	1	2	66.7
인천	3	0	3	100.0
광주	3	1	2	66.7
대전	3	0	3	100.0
울산	3	0	3	100.0
경기	12	5	7	58.3
강원	4	1	3	75.0
충북	3	1	2	66.7
충남	4	1	3	75.0
전북	4	1	3	75.0
전남	6	2	4	66.7
경북	6	2	4	66.7
경남	5	0	5	100.0
제주	7	2	5	71.4
합계	81	23	58	71.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제주지역 현황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중앙정치참여와 지방정치참여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정치참여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15대, 16대, 17대에는 입후보한 여성이 1명도 없었으며, 2008년 18대 선거에서는 2명, 2012년 19대 선거에서 1명이 입후보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출직은 15대~19대 모두 남성후보가 당선되었으며, 17대 선거와 19대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여성 의원이 각 1명 당선되었다.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연도	후보자		선출직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국회의원 선거	15대	1996	18	-	3	-	-	-
	16대	2000	10	-	3	-	-	-
	17대	2004	11	-	3	-	-	1
	18대	2008	13	2	3	-	-	-
	19대	2012	9	1	3	-	-	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다음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선출직 광역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5명 중 5명(6.7%)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전체 후보자 52명 중 3명(5.8%), 서귀포시 23명 중 2명(8.7%)으로 나타났다. 여성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 29명 중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여성 후보자 5명은 ‘여성의무공천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선거준비기간, 여성후보의 인지도, 지역구 관리 등 선거 출마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부족한 상태로서 당선 확률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2010년 제주지역 광역의원 지역구별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후보자		당선자	
	남	여	남	여
제주시	49	3	19	0
서귀포시	21	2	10	0
계	70	5	29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역대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수는 제 4 회 지방선거(2006년)에서 10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비례대표 후보 대비 여성후보 비율이 가장 많았던 선거는 제3회 지방선거(57.1%)로 나타났다. 반면 제1회 지방선거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수는 1명으로 전체의 20% 수준으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 수의 경우는 제3회 선거 이후 여성 당선자 비율이 남성 당선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3회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전체 비례대표 3명 중 2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제4회와 제5회 선거 모두 전체 당선자 7명 중 여성이 5명(71.0%)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1회와 제2회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3명 중 1명(33.3%)만 여성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이후 총 41석의 광역의원 의석 중 여성의원은 5석(12.2%)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5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참여는 전국 평균 14.8%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최소 전국 평균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2014년 제6차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의원 중 여성이 6명(14.8%)-7명(17.1%)은 되어야 한다.

<표 2-10> 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현황

구분	후보자			당선자			광역의원 수		
	남	여	여성 비율	남	여	여성 비율	총	시도 의원	교육 의원
제1회 (1995)	4	1	20.0	2	1	33.3	20	17	-
제2회 (1998)	4	2	33.3	2	1	33.3	17	14	-
제3회 (2002)	3	4	57.1	1	2	66.7	19	16	-
제4회 (2006)	8	10	55.6	2	5	71.4	41	29	5
제5회 (2010)	12	7	36.8	2	5	71.4	41	29	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 수를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전체 후보자 75명 중 새누리당이 28명(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주당 27명(3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여성후보자는 전체 75명 중 5명(6.7%)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전체 후보자 52명 중 3명(5.8%), 서귀포시는 전체 후보자 23명 2명(8.7%)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만 여성후보자를 배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전체 28명의 후보자 중 여성후보자는 3명(10.7%)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은 전체 27명명의 후보자 중 여성후보자는 2명(7.4%)으로 나타났다.

<표 2-11> 2010년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 현황

구분	정당별 후보자																												
	계		새누리		민주		자유선진		민주노동		창조한국		진보		국민중심		국민참여		미래연합		사회		친박연합		평화민주		무소속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계	75	5	28	3	27	2	1	0	5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0

구분	정당별 후보자																												
	계		새누리		민주		자유선진		민주노동		창조한국		진보		국민중심		국민참여		미래연합		사회		친박연합		평화민주		무소속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제주시	52	3	19	2	17	1	1	0	4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0
서귀포시	23	2	9	1	1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전체 당선자 29명 중 민주당이 16명(5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새누리당이 9명(33.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선자 중 여성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2-12> 2010년 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 현황

구분	정당별 후보자																												
	계		새누리		민주		자유선진		민주노동		창조한국		진보		국민중심		국민참여		미래연합		사회		친박연합		평화민주		무소속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계	29	0	9	0	16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제주시	19	0	6	0	1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서귀포시	10	0	3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선거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5대 선거에는 입후보한 여성이 1명도 없었으며, 6대 1명, 7대 1명, 8대 4명, 9대 5명의 여성후보가 입후보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5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17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남성 2명, 여성 1명이 당선되었다. 6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14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5대와 동일하게 남성 2명, 여성 1명이 당선되었다. 7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16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남성 1명, 여성 2명이 당선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도의회 선출직 인원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 8대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자는 29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남성 2명, 여성 5명으로 나타나 여성 당선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0년 9대 선거에서는 선출직, 비례대표직 남녀 당선자 수가 8대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연도	후보자		선출직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도의원 선거	5대	1995	46	-	17	-	2	1
	6대	1998	38	1	14	-	2	1
	7대	2002	39	1	16	-	1	2
	8대	2006	104	4	29	-	2	5
	9대	2010	70	5	29	-	2	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3) 제9대(2010년~) 여성의원 의정활동 성과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제정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총 87건의 조례가 발의되었고, 이 중 상정·심사 보류 및 재의요구

9건을 제외한 78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 2-14>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총괄 현황

구분	제정(공포)					처리중(계류중)		
	소계	정상 추진	추진 미흡	미추진	폐지	소계	상정·심사 보류	재의 요구
계	78	70	6	1	1	9	7	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내부자료

제9대 의원발의 조례(제정) 중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78건의 조례 중 11건(15%)으로 나타났고, 상임위별 발의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안전위원회 7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건, 문화관광위원회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안전위원회의 전체 조례 22건 중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7건(31.8%)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5>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 현황

계	복지안전	농수축·지 식산업	교육	문화관광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도시
11	7	2	1	1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내부자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명과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원이 발의한 11건의 조례 중 10건이 정상추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9대 도의회 운영기간(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동안 2011년 9건, 2012년 2건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된 조례를 소관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등 7건을 제

정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2건,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건,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건을 제정하였다.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여권 신장,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 교육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6>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 운영상황

연번	조례명	소관위원회	발의일	공포일	운영상황	소관부서
1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안전	‘11.04.07	‘11.05.11	정상추진	보건위생과
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복지안전	‘11.04.07	‘11.05.11	정상추진	노인장애인복지과
3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안전	‘11.05.23	‘11.06.29	정상추진	여성가족정책과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	‘11.05.23	‘11.06.29	정상추진	학교생활문화과(교육청)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복지안전	‘11.05.24	‘11.06.29	정상추진	여성가족정책과
6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수축 지식산업	‘11.09.01	‘11.10.12	정상추진	경제정책과
7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문화관광	‘11.09.30	‘11.11.02	정상추진	국제자유도시과
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계	복지안전	‘12.02.29	‘12.04.06	정상추진	여성가족정책과
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농수축 지식산업	‘12.06.05	‘12.07.18	추진미흡	해양개발과

연 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발의일	공포일	운영상황	소관부서
1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복지안전	'12.10.08	'12.11.12	정상추진	노인장애인 복지과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복지안전	'12.12.18	'13.01.16	정상추진	보건위생과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내부자료

제 3 절 해외사례 고찰⁹⁾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한 현상이자 방법이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여성정치문화연구소, 2010).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에서 검토한 여성할당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외국의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1. 여성할당제

1) 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정치는 정당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정당들은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여성할당을 당헌 및 당규에 규정하고 후보명부 작성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여성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사민당(SDP), 좌파당(VP, The Left Party), 녹색당(MpG)은 명부에서 50%의 여성을 할당하고 있고, 자유당(FP)의 경우에는 40%를 할당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가장 큰 정당인 사민당은 여성후보를 할당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번갈아 명부에 두는 지퍼방식(Zipper system)의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리하게 하였다.

정당들의 명부 할당은 선출직에서 여성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 정당들은 중앙선거에서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비율의 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9) 조갑련(2013)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재인용하였음.

<표 2-17> 스웨덴의 정당할당제도

구분		선거제도	선거구	의석배분방식	할당	강제이행 의무조항	기타
리크스다그 (중앙의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29개의 선거구 전국구	생라게 방식 ¹⁰⁾	301석 39석	적용 (정당에서)	정당자체 내에서 규정 선호 투표
주 의 회	도 의 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	생라게 방식	적용 (정당에서)	정당자체 내에서 규정	선호 투표
	시 의 회						
유럽의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국구	생라게 방식	적용	정당자체 내에서 규정	선호 투표

출처: 조갑련(2013), p. 49

스웨덴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여성이 부재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No real democracy without women)!’라는 여성운동의 구호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프랑스 사례

프랑스의 여성할당은 ‘남녀동수법’이라는 법의 시행으로 상징된다. 남녀동수법은 흔히 Parity법이라 불리는 법으로 2000년에 통과된 프랑스의 여성할당제이다. 이 법은 프랑스의 여러 선거에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동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선거에서는 남녀동수가 아닌 정당명부접수가 거부되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인 선거에서는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동수가 아닐 경우에는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삭감된다. 남녀동수법의 적용 명부인 경우 6명을 단위로 하여 그 안에서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녀동수제가 도입되고 나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이전에는 여성의원의 평균 비율이 21.7%였지만, 여성할당제가 도입

10) 생라게 식(Sainte-Lague method)은 홀수를 나누어 가면서 의석을 확정해 나가는 방식이며, 군소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 쉽다.

된 이후 여성의원비율은 33%로 증가하였다. 남녀후보동수법에서는 3500명 이하의 주민이 있는 시의 경우에는 법적용에서 예외로 했기 때문에 작은 시의 경우에는 여성의원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과반수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여성할당은 후보 수준의 여성할당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여성할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프랑스라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의무적이건 의무적이지 않건 간에 여성할당은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판단된다.

2. 비례대표제

1) 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서 선거구의 크기는 2명에서 34명까지 선출하는 대선구제이다. 스웨덴 의회의 임기는 4년으로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 스웨덴에서는 독특하게 각 정당이 투표용지를 인쇄한다. 이 투표용지들은 정당투표용지, 정당명부 투표용지, 비어있는 투표용지 등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정당투표용지는 정당이름만 적혀있는 투표용지로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당명부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의 후보자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비어있는 투표용지의 경우는 유권자가 선호 정당의 이름을 유권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투표용지 중에서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투표용지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스웨덴의 주요한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유권자는 정당의 의석수만 결정할 뿐 당선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명부 투표용지를 선택하여 유권자가 직접 명부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

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의회는 전체 349석으로 310석은 29개 권역별로 비례의석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39석은 권역별 의석배분의 결과가 전국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여 비례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정의석이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에 힘입어 스웨덴은 1998년 총선 이후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43%를 차지하였고, 내각은 50%이상이 여성관료에 의해 구성되었다.

2) 독일 사례

흔히 말하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독일 연방하원의 선거제도이다. 독일 연방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투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독일은 1949년 선거법 개정시 ‘인물선거를 결합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소위 ‘인물화된 비례제’로 정의되는 현행 독일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권자들은 1인 2표를 행사한다. 유권자들은 단순다수결로 선출하는 직접 출마후보에게 한 표(제1투표), 정당명부에 또 다른 한 표(제2투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 전체 598석의 의석 중에 직접출마 의석인 299석은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299명은 주단위에서 작성된 정당명부에서 선출된다.

셋째, 폐쇄형 명부에 등재된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명부를 통해 당선될 수 있다.

넷째,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각 정당의 총 의석은 정당투표인 제2투표의 득표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섯째, 각 정당은 연방차원에서 정당투표 5%이상을 얻거나 혹은 단순다수로 선출되는 직접출마 후보 가운데 3명 이상이 당선되어야 정당별 의석배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확정되면, 해당 정당의 주별 득표수에 따

라 주단위의 해당 정당 의석수가 정해지며, 주 단위의 정당별 총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폐쇄형 명부의 순위에 따라 명부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 각 정당들은 여성의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선거명부의 당선가능성 있는 위치에 여성을 배려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수를 증진시키고 있다.

3. 중선거구제

1) 일본 사례

일본의 선거제도는 199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로 바뀌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중선거구제는 인물중심, 파벌정치, 금권정치 등의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정치 스캔들로 비판받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로 당내 파벌을 해소하고, 정당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1990년대 일본 정치개혁의 핵심은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병립제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선거구제가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이는 거대정당인 자민당이 주장한 소선거구제와 사회당이나 공명당 등의 야당에서 주장한 비례대표제의 안을 절충한 제도개혁이었다. 1994년 개정된 선거제도는 500명의 중의원을 선출하는데, 이 중 300명은 단순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나머지 200명은 전국을 11개 블록으로 나누어 비례구에서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원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각 정당은 비례구별로 정당명부를 제출하고, 정당의 득표에 따라 비례구의 정수 중에 일정수의 의석을 할당받고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석패율(惜敗率)제도¹¹⁾를 통해 비례명부에서 동일 순위인 경우에 석패

11) 아깝게 떨어진 비율이라는 뜻으로 {후보자(낙선자)의 득표수/ 당선자의 득표수} × 100으로 산출됨

율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일본은 남성 우위적 문화 탓에 여성들이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일본여성들은 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기반이 되어 주지 않으며, 선거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후보는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정당후보로 인식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으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개발하고 진행해야만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와 정당의 공천 없이 독자적인 체계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요코카미카와, 1994).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이거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 후 점차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제도의 효능 분석, 정치 진입과정에 관한 연구, 선거제도의 결과분석 등 보다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홍춘희(2005)의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여성들이 제도정치 진입과정 및 의정활동 분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명실·김혜연(2005)의 연구는 제주지역의 여성정치인(정당활동 종사자, 정치와 관련한 여성단체장 포함)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의 가정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엄길임(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태도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관심도,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개선점 등을 살펴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미선(2010)의 연구에서는 현직 광주·전남 기초의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직의원이 인식하는 여성의원의 필요성, 여성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의원을 모두 조사하여 인식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다.

윤선숙(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의 정치적 효능감은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갑련(2013)의 연구에서는 선거제도가 여성의 지방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현직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선거결과가 실제 선거를 거친 여성의원들의 경험적 의견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해외사례 검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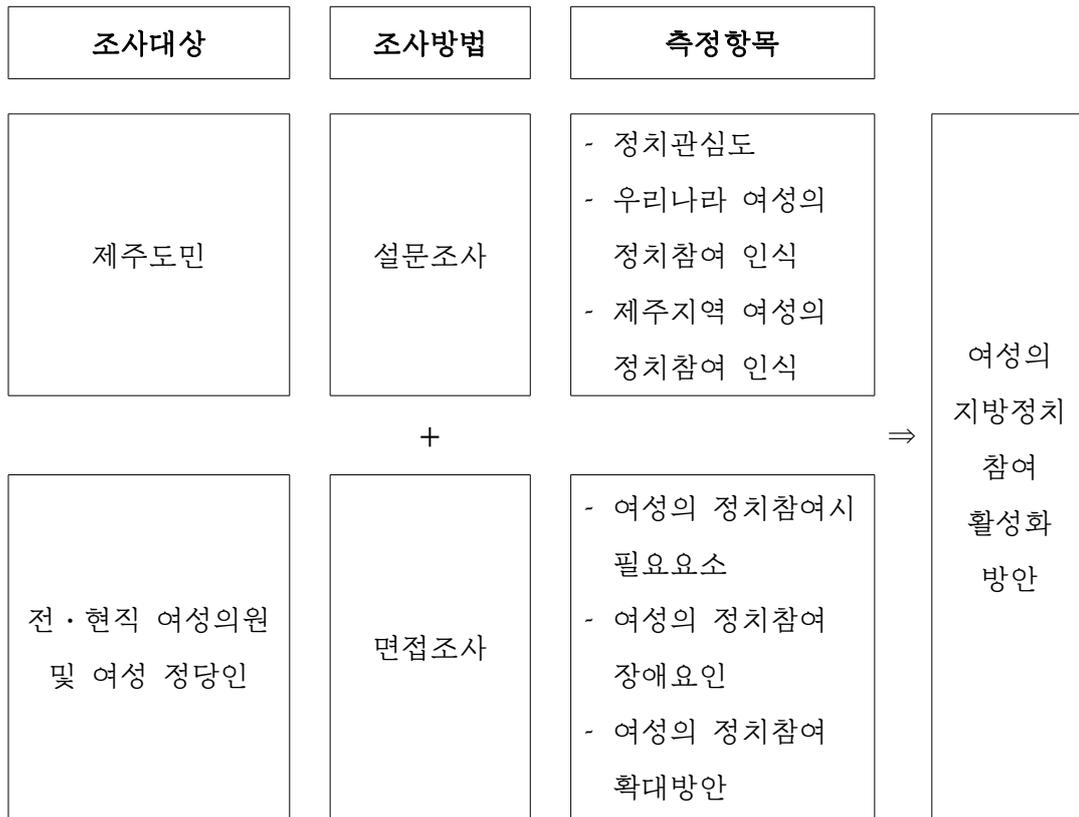
제 1 절 조사설계

1. 연구 분석틀 설정

본 연구의 2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장애요인 등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여성 지방정치참여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문헌연구와 여성 정치인 대상의 질적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지방의회 진입의 어려움, 필요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등 지역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014년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틀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대상의 설문조사와 실제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있는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식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 대상의 전문가조사에서는 여성이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 확대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2. 변수 설정 및 설문지 구성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서 종속변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다. 정치참여 인식에는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 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면접조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와 함께 일반도민이 느끼는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2) 독립변수

(1)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계소득, 직업, 거주지역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변수로 학력, 연령 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윤선숙(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정치관심도의 차이에 있어서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 정치 신뢰도의 차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정치참여 여부

정치참여 여부에 대한 하위변수는 정치활동 참여 경험 유무, 향후 정치활동 의사 유무를 선정하였다. 응답자가 정치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거나 향후 정치활동 의사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세부 내용
종속변수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남, 여로 구분
		연령	20대~60대 이상을 10세 단위로 세분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세분
		가계소득	월평균 2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을 100만원 단위로 세분

구분	변수명		세부 내용
		거주지역	제주시(동지역), 제주시(읍·면지역) 서귀포시(동지역), 서귀포시(읍·면지역)으로 구분
	정치참여 여부	참여 경험	참여 경험 유/무로 구분
		향후 의사	참여 의사 유/무로 구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로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3-2>과 같다.

<표 3-2> 조사도구(설문지)의 구성내용

구분	측정치표	세부지표	설문 문항 수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역	5
	정치참여 여부	정치참여 경험, 향후 정치참여 의사	2
종속변수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정치관심도	10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7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	4

그리고 면접조사는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 여성이 정치에 도전을 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여성이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고자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 질문하고자 준비한 문항 외에 면접도중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면접조사를 위한 개괄적인 질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3-3> 면접조사 질문 구성

구분	질문문항
여성의 정치참여시 필요요소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 자격기준, 제도적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가설 설정

실증분석에서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성별) 성별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 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연령) 연령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 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학력) 학력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 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가계소득) 가계소득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거주지) 거주지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제주도민의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정치참여 의향) 향후 정치참여 의향의 유무에 따라 정치관심도,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를 20세 이상의 제주도민으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조사의 대상은 선거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민 전체이다. 그러나 시간상, 비용상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과, 미회수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지역별 인구비례(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로 제주지 270부, 서귀포시 150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 및 향후 여성 정치참여 방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제주도민 대상의 여성 정치참여 인식조사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2일 간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의 문제점을 보완·재구성하였으며,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설문지 배포경험이 있으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버스정류장,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설문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42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지와 미회수된 설문지를 제외한 4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지역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구분	배부	회수	회수율(%)
제주시 동지역	200	200	100.0
제주시 읍·면지역	70	60	85.7
서귀포시 동지역	100	95	95.0
읍·면지역	50	45	90.0
계	420	400	95.2

그리고 면접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뒤,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윈도우용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χ^2 , t검정,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과 t검정,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 $p < .05$, ** $p < .01$, *** $p < .001$ 즉 95%, 99%, 99.9% 신뢰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면접조사의 경우,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질적자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여 자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강혜규 외, 2010).

IV. 분석결과 및 활성화 방안

제 1 절 실증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류는 남성이 50.5%, 여성이 49.5%로 고르게 나타났고, 연령은 40대 25.3%, 30대 22.3%, 50대 21.8%, 20대 20.5%, 60대 이상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48.6%, 대졸 이상 24.6%, 전문대졸 18.8%, 중졸이하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 35.6%, 200만원 미만 21.6%, 300-400만원 미만 21.1%, 400-500만원 미만 16.3%, 500만원 이상 5.3%로 300만원 이하의 소득군이 57.2%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의 경우, 제주시(동지역 50.0%), 서귀포시(동지역 23.8%), 제주시(읍·면지역 15.0%), 서귀포시(읍·면지역 11.3%)로 거주지의 인구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정치참여 여부 분류의 경우, 정치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 6.8%, 정치활동 참여 경험이 없다 93.2%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의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정치참여 의향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7.0%, 참여할 의향이 없다 93.0%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참여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400)	남	202	50.5
	여	198	49.5
연령 (n=400)	20대	82	20.5
	30대	89	22.3
	40대	101	25.3

구분	빈도(명)	비율(%)	
학력 (n=399)	50대	87	21.8
	60대 이상	41	10.3
	중졸이하	32	8.0
	고졸	194	48.6
	전문대졸	75	18.8
가계소득 (n=393)	대졸 이상	98	24.6
	200만원 미만	85	21.6
	200-300만원 미만	140	35.6
	300-400만원 미만	83	21.1
	400-500만원 미만	64	16.3
거주지 (n=400)	500만원 이상	21	5.3
	제주시(동지역)	200	50.0
	제주시(읍·면지역)	60	15.0
	서귀포시(동지역)	95	23.8
정치참여 경험 (n=400)	서귀포시(읍·면지역)	45	11.3
	있다	27	6.8
정치참여 의향 (n=400)	없다	373	93.2
	있다	28	7.0
개	없다	372	93.0
			100.0

2. 정치 관심도

정치관심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관심도 10개 문항 중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문항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정도의 2문항은 최대값이 4점으로 나타나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 정도(M=3.86)가 가장 적극적인 정치관심도를 나타내는 문항이었고, 이어서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정도(M=3.41),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M=3.32), 선거제도 관심정도(M=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관심도에서 평균이 1점대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인 문항은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정도(M=1.74), 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정도(M=1.85)로 나타났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정도(M=2.32),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정도(M=2.47), 선거기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지지 유도정도(M=2.81)도 보통(M=3)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 정치관심도 지표의 기술통계량

문항	N	Min	Max	M	SD
언론매체의 정치보도 관심 정도	400	1.00	5.00	3.32	.86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도	400	1.00	5.00	3.05	.91
선거제도 관심정도	400	1.00	5.00	3.21	.91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정도	397	1.00	5.00	3.41	.93
선거기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지지 유도정도	399	1.00	5.00	2.81	1.15
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정도	397	1.00	5.00	1.85	.88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정도	398	1.00	4.00	1.74	.80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정도	397	1.00	5.00	2.47	.94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정도	398	1.00	4.00	2.32	.90
투표에 참여정도	400	1.00	5.00	3.86	.77

1) 언론매체를 통한 정치보도 관심 여부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정치면을 자주 보시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 가계소득,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52)이 여성(3.12)에

비해 정치면을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3.47)와 60대 이상(3.46)이 낮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서귀포시 동지역(3.48)에 거주하는 도민의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제주시 읍·면지역(3.33), 제주시 동지역(3.31), 서귀포시 읍·면지역(3.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3.67)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29)에 비해 언론매체의 정치면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언론매체를 통한 정치면에 대한 관심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12	.84	-4.749	.000***
	남	198	3.52	.83		
연령	20대	82	3.13	.78	2.538	.040*
	30대	89	3.20	.86		
	40대	101	3.39	.86		
	50대	87	3.47	.87		
	60대 이상	41	3.46	.90		
학력	중졸 이하	32	3.31	1.12	.085	.968
	고졸	194	3.33	.78		
	전문대졸	75	3.35	.92		
	대졸 이상	98	3.29	.87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3.18	1.01	2.209	.067
	200-300만원 미만	140	3.34	.79		
	300-400만원 미만	83	3.46	.70		
	400-500만원 미만	64	3.19	.89		
	500만원이상	21	3.62	.9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3.31	.93	3.045	.029*
	제주시 읍·면지역	60	3.33	.84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서귀포시 동지역	95	3.48	.77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02	.66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67	.92	2.218	.029*
	없다	373	3.29	.85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61	.96	1.844	.066
	없다	372	3.30	.85		

*p<.05, **p<.01, ***p<.001

2) 정치에 관한 대화 빈도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학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35)이 여성(2.75)에 비해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3.29)가 타 가계소득자보다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 부문에서는 서귀포시 동지역(3.43), 제주시 읍·면지역(3.05), 제주시 동지역(2.93), 서귀포시 읍·면지역(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정치에 관한 대화 빈도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2.75	.85	-6.904	.000***
	남	198	3.35	.88		
연령	20대	82	2.94	.93	.807	.521
	30대	89	3.00	.80		
	40대	101	3.04	.95		

구분		N	M	SD	t값/F 값	p값
	50대	87	3.16	.93		
	60대 이상	41	3.15	.99		
학력	중졸 이하	32	2.94	1.13	.867	.458
	고졸	194	3.04	.84		
	전문대졸	75	3.19	1.01		
	대졸 이상	98	2.99	.9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2.82	1.03	2.419	.048*
	200-300만원 미만	140	3.13	.94		
	300-400만원 미만	83	3.17	.71		
	400-500만원 미만	64	2.97	.96		
	500만원이상	21	3.29	.7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2.93	.89	8.589	.000***
	제주시 읍·면지역	60	3.05	.91		
	서귀포시 동지역	95	3.43	.90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78	.82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48	1.09	2.578	.010*
	없다	373	3.02	.89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50	1.00	2.744	.006**
	없다	372	3.01	.90		

*p<.05, **p<.01, ***p<.001

3) 선거제도 관심 여부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학력, 가계소득,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41)이 여성(3.01)에

비해 선거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 부문에서는 제주시의 경우, 동지역 거주자(3.14)와 읍·면지역 거주자(3.15)의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가 유사한 반면, 서귀포시는 동지역(3.45)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3.09)에 비해 선거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3.63)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18)에 비해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01	.88	-4.57	.000***
	남	198	3.41	.89		
연령	20대	82	3.07	.86	1.427	.224
	30대	89	3.12	.82		
	40대	101	3.23	.98		
	50대	87	3.37	.88		
	60대 이상	41	3.29	1.03		
학력	중졸 이하	32	3.06	1.11	4.044	.373
	고졸	194	3.18	.87		
	전문대졸	75	3.36	1.02		
	대졸 이상	98	3.19	.82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3.04	.93	1.460	.241
	200-300만원 미만	140	3.29	.93		
	300-400만원 미만	83	3.34	.80		
	400-500만원 미만	64	3.17	.94		
	500만원 이상	21	3.24	.94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3.14	.88	3.064	.028*
	제주시 읍·면지역	60	3.15	.94		
	서귀포시 동지역	95	3.45	.93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09	.87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63	.93	6.277	.013*
	없다	373	3.18	.90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32	.90	.454	.501
	없다	372	3.20	.91		

*p<.05, **p<.01, ***p<.001

4)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여부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55)이 여성(3.27)에 비해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3.81)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38)에 비해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3.27	.94	-3.049	.002**
	남	195	3.55	.90		
연령	20대	82	3.29	.88	2.116	.078
	30대	89	3.36	.91		
	40대	99	3.29	.98		
	50대	86	3.59	.87		
	60대 이상	41	3.61	1.00		
학력	중졸 이하	32	3.31	.97	.422	.373
	고졸	193	3.37	.90		
	전문대졸	74	3.42	1.06		
	대졸이상	97	3.48	.88		

구분		N	M	SD	t값/F값	p값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4	3.32	1.05	.645	.631
	200-300만원 미만	139	3.43	.94		
	300-400만원 미만	82	3.44	.90		
	400-500만원 미만	64	3.38	.81		
	500만원 이상	21	3.67	.86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8	3.38	.91	.711	.546
	제주시 읍·면지역	59	3.31	1.02		
	서귀포시 동지역	95	3.52	.91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40	.91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81	.83	5.690	.018*
	없다	370	3.38	.93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50	1.00	.311	.577
	없다	369	3.40	.92		

*p<.05, **p<.01, ***p<.001

5)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여부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주민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학력,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에 비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응답자보다 중간소득군(200-400만원)의 응답자가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 응답자(3.47)가 타지역 응답자

에 비해,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3.26)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2.78)에 비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 특정 후보자·정당 지지 유도 발언 경험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2	2.71	1.06	-1.797	.073
	남	197	2.91	1.23		
연령	20대	82	2.45	1.04	4.112	.003**
	30대	89	2.72	1.18		
	40대	100	2.85	1.12		
	50대	87	3.13	1.13		
	60대 이상	41	2.95	1.20		
학력	중졸 이하	32	3.03	1.12	1.776	.151
	고졸	194	2.80	1.10		
	전문대졸	74	2.97	1.28		
	대졸 이상	98	2.62	1.14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2.62	1.12	2.931	.021*
	200-300만원 미만	139	3.04	1.22		
	300-400만원 미만	83	2.84	.97		
	400-500만원 미만	64	2.67	1.20		
	500만원 이상	21	2.38	1.1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9	2.55	1.10	16.744	.000***
	제주시 읍·면지역	60	2.83	1.08		
	서귀포시 동지역	95	3.47	1.09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51	.99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3.26	1.26	4.492	.035*
	없다	372	2.78	1.13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2.89	1.20	.159	.691
	없다	371	2.80	1.14		

*p<.05, **p<.01, ***p<.001

6)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여부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계소득,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1.98)이 여성(1.73)에 비해,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읍·면 지역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2.78)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1.79)에 비해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선거기간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경험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0	1.73	.81	-2.839	.005**
	남	197	1.98	.94		
연령	20대	82	1.51	.63	4.483	.001**
	30대	88	1.86	.76		
	40대	101	1.92	.92		
	50대	85	1.99	.94		
	60대 이상	41	2.07	1.15		
학력	중졸 이하	32	2.25	1.16	4.326	.005**
	고졸	193	1.92	.89		
	전문대졸	73	1.68	.68		
	대졸 이상	98	1.71	.86		

구분		N	M	SD	t값/F값	p값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3	1.92	1.00	2.092	.081
	200-300만원 미만	139	1.96	.91		
	300-400만원 미만	83	1.80	.75		
	400-500만원 미만	64	1.66	.82		
	500만원 이상	21	1.57	.75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7	1.74	.93	5.486	.001**
	제주시 읍·면지역	60	2.25	.97		
	서귀포시 동지역	95	1.88	.73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1.76	.71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2.78	1.05	34.295	.000***
	없다	370	1.79	.83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1.89	1.10	.058	.809
	없다	369	1.85	.87		

*p<.05, **p<.01, ***p<.001

7) 선거기간 중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선거기간 정당모임,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관심도에 대한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 가계소득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1.87)이 여성(1.62)에 비해,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거기간 중 정당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정치참여 경험 및 의향

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선거기간 중 정당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선거기간 중 정당 및 정치적 활동 참여 여부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1	1.62	.68	-3.246	.001**
	남	197	1.87	.89		
연령	20대	82	1.49	.71	2.739	.029*
	30대	89	1.82	.76		
	40대	100	1.79	.86		
	50대	86	1.81	.76		
	60대 이상	41	1.83	.89		
학력	중졸 이하	32	2.09	.93	2.613	.051
	고졸	193	1.75	.79		
	전문대졸	73	1.69	.72		
	대졸 이상	98	1.65	.81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3	1.78	.88	1.328	.259
	200-300만원 미만	139	1.79	.71		
	300-400만원 미만	83	1.77	.80		
	400-500만원 미만	64	1.59	.85		
	500만원 이상	21	1.48	.75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9	1.64	.80	3.046	.029*
	제주시 읍·면지역	59	1.97	.89		
	서귀포시 동지역	95	1.82	.77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1.76	.65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2.44	1.01	23.700	.000***
	없다	371	1.69	.76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2.04	.1.07	4.079	.044*
	없다	370	1.72	.77		

*p<.05, **p<.01, ***p<.001

8) 정치의 국민 이익을 위한 공평하게 고려하는지 여부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학력, 가계소득,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2.75)이 여성(2.20)에 비해,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가(3.11)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199	2.20	.74	-6.136	.000***
	남	198	2.75	1.03		
연령	20대	82	2.50	.96	.586	.673
	30대	88	2.39	.85		
	40대	100	2.49	1.02		
	50대	87	2.56	.96		
	60대 이상	40	2.35	.80		
학력	중졸 이하	31	2.42	.81	.411	.745
	고졸	193	2.52	.88		
	전문대졸	74	2.39	.98		
	대졸 이상	98	2.46	1.0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2.34	.99	.664	.618
	200-300만원 미만	139	2.50	.85		

구분		N	M	SD	t값/F값	p값
	300-400만원 미만	82	2.55	1.01		
	400-500만원 미만	63	2.52	1.00		
	500만원 이상	21	2.38	.86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7	2.24	.81	24.978	.000***
	제주시 읍·면지역	60	2.52	1.02		
	서귀포시 동지역	95	3.11	.88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09	.79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2.63	.79	.831	.362
	없다	370	2.46	.95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2.29	1.01	1.181	.278
	없다	369	2.49	.93		

*p<.05, **p<.01, ***p<.001

9) 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여부

“정치가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학력, 정치참여 경험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2.54)이 여성(2.10)에 비해, 그리고 가계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응답자보다 중간이상 소득군(300-500만원)의 응답자가 정치인들의 말을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가(3.03)가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그리고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2.35)가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1.86)에 비해 정치인들의 말을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차이

구분		N	M	SD	t값/F값	p값
성별	여	201	2.10	.80	-5.060	.000***
	남	197	2.54	.94		
연령	20대	82	2.43	.92	.373	.828
	30대	89	2.29	.88		
	40대	100	2.28	.96		
	50대	87	2.30	.90		
	60대 이상	40	2.30	.76		
학력	중졸 이하	31	2.13	.81	.580	.628
	고졸	193	2.36	.89		
	전문대졸	75	2.32	.97		
	대졸 이상	98	2.31	.9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3	1.95	.81	4.703	.001**
	200-300만원 미만	140	2.39	.89		
	300-400만원 미만	83	2.48	.87		
	400-500만원 미만	64	2.44	.97		
	500만원 이상	21	2.33	1.0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99	2.11	.83	32.881	.000***
	제주시 읍·면지역	59	2.17	.81		
	서귀포시 동지역	95	3.03	.82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1.96	.71		
정치참여 경험	있다	26	2.38	.90	.147	.702
	없다	372	2.31	.90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1.86	.97	8.053	.005**
	없다	370	2.35	.89		

*p<.05, **p<.01, ***p<.001

10) 투표 참여의 적극성 여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관심도에 대한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97)이 여성(3.74)에 비해, 50대(4.06)과 60대 이상(3.93)이 타 연령대에 비해 투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4.22)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86)에 비해 투표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투표 참여 적극성에 대한 차이

구분		N	M	SD	t값/F 값	p값
성별	여	202	3.74	.78	-2.959	.003***
	남	198	3.97	.75		
연령	20대	82	3.74	.73	2.860	.023*
	30대	89	3.71	.77		
	40대	101	3.87	.77		
	50대	87	4.06	.77		
	60대 이상	41	3.93	.82		
학력	중졸 이하	32	3.75	.84	1.805	.146
	고졸	194	3.80	.77		
	전문대졸	75	3.84	.74		
	대졸 이상	98	4.01	.78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5	3.72	.84	1.446	.218
	200-300만원 미만	140	3.88	.78		
	300-400만원 미만	83	3.94	.69		
	400-500만원 미만	64	3.84	.78		

구분		N	M	SD	t값/F값	p값
	500만원 이상	21	4.10	.77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00	3.90	.75	2.189	.089
	제주시 읍·면지역	60	3.88	.67		
	서귀포시 동지역	95	3.88	.89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3.58	.72		
정치참여 경험	있다	27	4.22	.64	6.594	.011*
	없다	373	3.83	.78		
정치참여 의향	있다	28	3.75	.84	.552	.458
	없다	372	3.86	.77		

*p<.05, **p<.01, ***p<.001

3.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관련

1) 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한 견해

“우리나라는 18대 대통령에 여성이 당선되는 등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보다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 성별, 학력, 거주지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82.2%)이 남성(68.9%)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고졸이나 중졸 이하에 비해 여성의 정치 진출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 거주자가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23.7%)의 경우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의견			합계	χ^2	
	부정적	긍정적	관심없다			
성별	여	12 (5.9)	166 (82.2)	24 (11.9)	202 (100.0)	10.598**
	남	27 (13.8)	135 (68.9)	34 (17.3)	196 (100.0)	
연령	20대	6 (7.3)	58 (70.7)	18(22.0)	82 (100.0)	12.186
	30대	8 (9.0)	68 (76.4)	13 (14.6)	89 (100.0)	
	40대	8 (8.0)	83 (73.0)	9 (9.0)	100 (100.0)	
	50대	13 (14.9)	59 (67.8)	15 (17.2)	87 (100.0)	
	60대 이상	4 (10.0)	33 (82.5)	3 (7.5)	40 (100.0)	
학력	중졸 이하	8 (25.0)	20 (62.5)	4 (12.5)	32 (100.0)	14.620*
	고졸	17 (8.8)	143 (74.1)	33 (17.1)	193 (100.0)	
	전문대졸	8 (10.8)	61 (82.4)	5 (6.8)	74 (100.0)	
	대졸 이상	6 (6.1)	77 (78.6)	15 (15.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4 (16.5)	58 (68.2)	13 (15.3)	85 (100.0)	1.380
	200-300만원 미만	7 (5.1)	113 (81.9)	18 (13.0)	138 (100.0)	
	300-400만원 미만	9 (10.8)	60 (72.3)	14 (16.9)	83 (100.0)	
	400-500만원 미만	5 (7.8)	49 (76.6)	10 (15.6)	64 (100.0)	
	500만원 이상	3 (14.3)	17 (81.0)	1 (4.8)	21 (100.0)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7 (8.5)	160 (80.4)	22 (11.1)	199 (100.0)	24.666***
	제주시 읍·면지역	14 (23.7)	33 (55.9)	12 (20.3)	59 (100.0)	
	서귀포시 동지역	3 (3.2)	77 (81.1)	15 (15.8)	95 (100.0)	
	서귀포시	5	31	9	45	

구분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의견			합계	x^2	
	부정적	긍정적	관심없다			
읍·면지역	(11.1)	(68.9)	(20.0)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4 (14.8)	23 (85.2)	0 (0.0)	27 (100.0)	5.314
	없다	35 (9.4)	278 (74.9)	58 (15.6)	371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2 (7.1)	22 (78.6)	4 (14.3)	28 (100.0)	.253
	없다	37 (10.0)	279 (75.4)	54 (14.6)	370 (100.0)	

*p<.05, **p<.01, ***p<.001

2)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여성의 정치 진출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301명에 대해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학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여성후보자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부문도 여성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55.0%~62.3%)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두 번째 이유로 고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라고 응답하였고,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단위: 명(%)

구분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¹²⁾				합계	x^2	
	1	2	3	4			
성별	여	46 (27.7)	16 (9.6)	86 (51.8)	18 (10.8)	166 (100.0)	7.641
	남	22 (16.3)	10 (7.4)	90 (66.7)	13 (9.6)	135 (100.0)	
연령	20대	14 (24.1)	1 (1.7)	37 (63.8)	6 (10.3)	58 (100.0)	16.620
	30대	15 (22.1)	3 (4.4)	40 (58.8)	10 (14.7)	68 (100.0)	

구분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¹²⁾				합계	χ^2
		1	2	3	4		
	40대	16 (19.3)	9 (10.8)	47 (56.6)	11 (13.3)	83 (100.0)	
	50대	14 (23.7)	7 (11.9)	34 (57.6)	4 (6.8)	59 (100.0)	
	60대 이상	9 (27.3)	6 (18.2)	18 (54.5)	0 (0.0)	33 (100.0)	
학력	중졸 이하	4 (20.0)	5 (25.0)	11 (55.0)	0 (0.0)	20 (100.0)	18.034*
	고졸	27 (18.9)	17 (11.9)	83 (58.0)	16 (11.2)	143 (100.0)	
	전문대졸	15 (24.6)	2 (3.3)	38 (62.3)	6 (9.8)	61 (100.0)	
	대졸 이상	22 (28.6)	2 (2.6)	44 (57.1)	9 (11.7)	77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9 (15.5)	9 (15.5)	36 (62.1)	4 (6.9)	58 (100.0)	10.152
	200-300만원 미만	29 (25.7)	7 (6.2)	67 (59.3)	10 (8.8)	113 (100.0)	
	300-400만원 미만	14 (23.3)	4 (6.7)	35 (58.3)	7 (11.7)	60 (100.0)	
	400-500만원 미만	13 (26.5)	2 (4.1)	27 (55.1)	7 (14.3)	49 (100.0)	
	500만원 이상	3 (17.6)	2 (11.8)	10 (58.8)	2 (11.8)	17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32 (20.0)	16 (10.0)	88 (55.0)	24 (15.0)	160 (100.0)	16.830
	제주시 읍·면지역	8 (24.2)	4 (12.1)	21 (63.6)	0 (0.0)	33 (100.0)	
	서귀포시 동지역	24 (31.2)	3 (3.9)	45 (58.4)	5 (6.5)	77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4 (12.9)	3 (9.7)	22 (71.0)	2 (6.5)	31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6 (26.1)	0 (0.0)	15 (65.2)	2 (8.7)	23 (100.0)	2.542
	없다	62 (22.3)	26 (9.4)	161 (57.9)	29 (10.4)	278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3 (13.6)	4 (18.2)	14 (63.6)	1 (4.5)	22 (100.0)	.253
	없다	65 (23.3)	22 (7.9)	162 (58.1)	30 (10.8)	279 (100.0)	

*p<.05, **p<.01, ***p<.001

12)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

3)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의 2, 3, 4순위를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28.2%), 생활정치와 등장이므로(17.3%),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11.9%)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20.9%), 생활정치와 등장이므로(18.9%),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18.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 부문에서는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는 여성정치가 권리와 의무(63.2%)라는 응답이 다른 필요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과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과 생활정치와 등장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의 2, 3, 4순위를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40.7%),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11.2%), 생활정치와 등장이므로(7.4%) 순으로 응답한 반면,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24.3%), 생활정치와 등장이므로(18.9%),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14.6%)의 순으로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15>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¹³⁾				합계	χ^2
		1	2	3	4		
성별	여	86 (42.6)	24 (11.9)	35 (17.3)	57 (28.2)	202 (100.0)	9.251*
	남	82 (41.8)	41 (20.9)	37 (18.9)	36 (18.4)	196 (100.0)	

위하여, 2: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3: 정치부문도 여성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 지금까지는 남성의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¹³⁾				합계	χ^2
		1	2	3	4		
연령	20대	42 (51.9)	12 (14.8)	7 (8.6)	20 (24.7)	81 (100.0)	13.919
	30대	39 (43.8)	16 (18.0)	19 (21.3)	15 (16.9)	89 (100.0)	
	40대	38 (37.6)	19 (18.8)	19 (18.8)	25 (24.8)	101 (100.0)	
	50대	31 (36.0)	11 (12.8)	18 (20.9)	26 (30.2)	86 (100.0)	
	60대 이상	18 (43.9)	7 (17.1)	9 (22.0)	7 (17.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9 (28.1)	7 (21.9)	9 (28.1)	7 (21.9)	32 (100.0)	13.116
	고졸	85 (44.0)	32 (16.6)	28 (14.5)	48 (24.9)	193 (100.0)	
	전문대졸	26 (34.7)	11 (14.7)	21 (28.0)	17 (22.7)	75 (100.0)	
	대졸 이상	48 (49.5)	15 (15.5)	14 (14.4)	20 (20.6)	97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30 (35.3)	15 (17.6)	14 (16.5)	26 (30.6)	85 (100.0)	17.877
	200-300만원 미만	51 (37.0)	28 (20.3)	29 (21.0)	30 (21.7)	138 (100.0)	
	300-400만원 미만	39 (47.0)	13 (15.7)	14 (16.9)	17 (20.5)	83 (100.0)	
	400-500만원 미만	39 (60.9)	4 (6.3)	10 (15.6)	11 (17.2)	64 (100.0)	
	500만원 이상	8 (38.1)	3 (14.3)	4 (19.0)	6 (28.6)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70 (35.0)	29 (14.5)	41 (20.5)	60 (30.0)	200 (100.0)	49.732***
	제주시 읍·면지역	20 (33.3)	9 (15.0)	19 (31.7)	12 (20.0)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60 (63.2)	23 (24.2)	4 (4.2)	8 (8.4)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8 (41.9)	4 (9.3)	8 (18.6)	13 (30.2)	43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1 (40.7)	11 (40.7)	2 (7.4)	3 (11.2)	27 (100.0)	14.271**
	없다	157 (42.3)	54 (14.6)	70 (18.9)	90 (24.3)	371 (100.0)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¹³⁾				합계	x^2
		1	2	3	4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2 (42.9)	5 (17.9)	3 (10.7)	8 (28.6)	28 (100.0)	1.301
	없다	156 (42.2)	60 (16.2)	69 (18.6)	85 (23.0)	370 (100.0)	

*p<.05, **p<.01, ***p<.001

4)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서귀포시 거주자가 제주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57.1%)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35.5%)에 비해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하는지에 대한 의견			합계	x^2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성별	여	82 (40.6)	53 (26.2)	67 (33.2)	202 (100.0)	2.732
	남	66 (33.3)	64 (32.3)	68 (34.3)	198 (100.0)	
연령	20대	33 (40.2)	21 (25.6)	28 (34.1)	82 (100.0)	10.181
	30대	40 (44.9)	18 (20.2)	31 (34.8)	89 (100.0)	
	40대	38 (37.6)	30 (29.7)	33 (32.7)	101 (100.0)	

13)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와 의무이므로, 2: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 3: 생활정치에의 등장이므로, 4: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구분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당하는지에 대한 의견			합계	χ^2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50대	26 (29.9)	33 (37.9)	28 (32.2)	87 (100.0)	
	11 (26.8)	15 (36.6)	15 (36.6)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 (31.3)	7 (21.9)	15 (46.9)	8.006
	고졸	70 (36.1)	54 (27.8)	70 (36.1)	
	전문대졸	34 (45.3)	24 (32.0)	17 (22.7)	
	대졸 이상	33 (33.7)	32 (32.7)	33 (33.7)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6 (30.6)	18 (21.2)	41 (48.2)	23.345**
	200-300만원 미만	61 (43.6)	37 (26.4)	42 (30.0)	
	300-400만원 미만	34 (41.0)	25 (30.1)	24 (28.9)	
	400-500만원 미만	19 (29.7)	25 (39.1)	20 (31.3)	
	500만원 이상	3 (14.3)	12 (57.1)	6 (28.6)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68 (34.0)	65 (32.5)	67 (33.5)	21.945**
	제주시 읍·면지역	12 (20.0)	22 (36.7)	26 (43.3)	
	서귀포시 동지역	48 (50.5)	15 (15.8)	32 (33.7)	
	서귀포시 읍·면지역	20 (44.4)	15 (33.3)	10 (22.2)	
정치 참여 경험	있다	7 (25.9)	10 (37.0)	10 (37.0)	1.653
	없다	141 (37.8)	107 (28.7)	125 (33.5)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6 (57.1)	8 (28.6)	4 (14.3)	6.686*
	없다	132 (35.5)	109 (29.3)	131 (35.2)	

*p<.05, **p<.01, ***p<.001

5)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117명에 대해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거주지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거주지에서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51.1%~85.7%)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사회적 편견 때문(51.1%)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두 번째 이유인 성인지적 고정관념(35.6%)이라는 응답률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단위: 명(%)

구분		여성이 정치소외 당하는 원인 ¹⁴⁾				합계	χ^2
		1	2	3	4		
성별	여	34 (66.7)	2 (3.9)	12 (23.5)	3 (5.9)	51 (100.0)	4.426
	남	38 (57.6)	9 (13.6)	12 (18.2)	7 (10.6)	66 (100.0)	
연령	20대	21 (80.8)	2 (7.7)	3 (11.5)	0 (0.0)	26 (100.0)	19.947
	30대	16 (48.5)	4 (12.1)	8 (24.2)	5 (15.2)	33 (100.0)	
	40대	18 (60.0)	1 (3.3)	10 (33.3)	1 (33.3)	30 (100.0)	
	50대	13 (61.9)	4 (19.0)	2 (9.5)	2 (9.5)	21 (100.0)	
	60대 이상	4 (57.1)	0 (0.0)	1 (14.3)	2 (28.6)	7 (100.0)	
학력	중졸 이하	2 (33.3)	0 (0.0)	2 (33.3)	2 (33.3)	6 (100.0)	13.881
	고졸	36 (72.0)	3 (6.0)	8 (16.0)	3 (6.0)	50 (100.0)	
	전문대졸	14 (45.2)	6 (19.4)	8 (25.8)	3 (9.7)	31 (100.0)	
	대졸 이상	19 (65.2)	2 (6.9)	6 (20.7)	2 (6.9)	29 (100.0)	

구분		여성이 정치소외 당하는 원인 ¹⁴⁾				합계	χ^2
		1	2	3	4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6 (88.9)	0 (0.0)	1 (5.6)	1 (5.6)	18 (100.0)	15.793
	200-300만원 미만	26 (54.2)	6 (12.5)	13 (27.1)	3 (6.3)	48 (100.0)	
	300-400만원 미만	17 (58.6)	4 (13.8)	5 (17.2)	3 (10.3)	29 (100.0)	
	400-500만원 미만	12 (63.2)	1 (5.3)	4 (21.1)	2 (10.5)	19 (100.0)	
	500만원 이상	0 (0.0)	0 (0.0)	1 (50.0)	1 (50.0)	2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27 (61.4)	5 (11.4)	6 (13.6)	6 (13.6)	44 (100.0)	20.529*
	제주시 읍·면지역	10 (71.4)	1 (7.1)	0 (0.0)	3 (21.4)	14 (100.0)	
	서귀포시 동지역	23 (51.1)	5 (11.1)	16 (35.6)	1 (2.2)	4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2 (85.7)	0 (0.0)	2 (14.3)	0 (0.0)	14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5 (71.4)	0 (0.0)	1 (14.3)	1 (14.3)	7 (100.0)	1.246
	없다	67 (60.9)	11 (10.0)	23 (20.9)	9 (8.2)	110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5 (55.6)	1 (11.1)	3 (33.3)	0 (0.0)	9 (100.0)	1.702
	없다	67 (62.0)	10 (9.3)	21 (19.4)	10 (9.3)	108 (100.0)	

*p<.05, **p<.01, ***p<.001

6)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최근 정치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가계소득, 거주지, 정치참여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61.9%)이 남성(46.5%)에 비해,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

14)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여성출마자의 제약, 3: 성인지적 고정관념, 4: 여성후보의 정치역량 부족

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바람직하고 응답하였다. 제주시 거주자의 경우, 동지역(56.5%)과 읍·면지역(53.3%)에 관계없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서귀포시의 경우, 동지역 거주자는 62.9%의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지역 거주자는 28.9%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28.6%)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7.8%)에 비해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의견			합계	χ^2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다	모르겠다		
성별	여	125 (61.9)	8 (4.0)	69 (34.2)	202 (100.0)	17.337***
	남	92 (46.5)	29 (14.6)	77 (38.9)	198 (100.0)	
연령	20대	44 (53.7)	7 (8.5)	31 (37.8)	82 (100.0)	1.818
	30대	44 (49.4)	8 (9.0)	37 (41.6)	89 (100.0)	
	40대	57 (56.4)	9 (8.9)	35 (34.7)	101 (100.0)	
	50대	49 (56.3)	9 (10.3)	29 (33.3)	87 (100.0)	
	60대 이상	23 (56.1)	4 (9.8)	14 (34.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5 (16.9)	3 (9.4)	14 (43.8)	32 (100.0)	8.766
	고졸	100 (51.5)	14 (7.2)	80 (41.2)	194 (100.0)	
	전문대졸	48 (64.0)	7 (9.3)	20 (26.7)	75 (100.0)	
	대졸 이상	54 (55.1)	13 (13.3)	31 (31.6)	98 (100.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9 (34.1)	12 (14.1)	44 (51.8)	85 (100.0)	26.773**
	200-300만원 미만	76 (54.3)	10 (7.1)	54 (38.6)	140 (100.0)	

구분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의견			합계	χ^2
		바람직	바람직 하지않다	모르겠다		
	300-400만원 미만	45 (54.2)	9 (10.8)	29 (34.9)	83 (100.0)	
	400-500만원 미만	488 (75.0)	4 (6.3)	12 (18.8)	64 (100.0)	
	500만원 이상	13 (61.9)	2 (9.5)	6 (28.6)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113 (56.5)	17 (8.5)	70 (35.0)	200 (100.0)	20.249**
	제주시 읍·면지역	32 (53.3)	8 (13.3)	20 (33.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59 (62.1)	3 (3.2)	33 (34.7)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3 (28.9)	9 (20.0)	23 (51.1)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1 (40.7)	4 (14.8)	12 (44.4)	27 (100.0)	2.444
	없다	206 (55.2)	33 (8.8)	134 (35.9)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4 (50.0)	8 (28.6)	6 (21.4)	28 (100.0)	14.125**
	없다	203 (54.6)	29 (7.8)	140 (37.6)	372 (100.0)	

*p<.05, **p<.01, ***p<.001

7)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여성이 정치영역에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거주지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거주지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21.1%~42.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사회분위기 조성(21.1%)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여성정치가 변화(20.0%)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타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단위: 명(%)

구분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개선점 ¹⁵⁾				합계	χ^2	
	1	2	3	4			
성별	여	52 (25.7)	84 (41.6)	33 (16.3)	33 (16.3)	202 (100.0)	.570
	남	49 (24.7)	79 (39.9)	38 (19.2)	32 (16.2)	198 (100.0)	
연령	20대	23 (28.0)	33 (40.2)	17 (20.7)	9 (11.0)	82 (100.0)	17.954
	30대	20 (22.5)	42 (47.2)	16 (18.0)	11 (12.4)	89 (100.0)	
	40대	24 (23.8)	39 (38.6)	23 (22.8)	15 (14.9)	101 (100.0)	
	50대	24 (27.6)	36 (41.4)	11 (12.6)	16 (18.4)	87 (100.0)	
	60대 이상	10 (24.4)	13 (31.7)	4 (9.8)	14 (34.1)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7 (21.9)	9 (28.1)	5 (15.6)	11 (34.4)	32 (100.0)	11.007
	고졸	51 (26.3)	75 (38.7)	37 (19.1)	31 (16.0)	194 (100.0)	
	전문대졸	21 (28.0)	32 (42.7)	12 (16.0)	10 (13.3)	75 (100.0)	
	대졸 이상	22 (22.4)	46 (46.9)	17 (17.3)	13 (13.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4 (28.2)	38 (44.7)	11 (12.9)	12 (14.1)	85 (100.0)	9.609
	200-300만원 미만	36 (25.7)	54 (38.6)	32 (22.9)	18 (12.9)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22 (26.5)	29 (34.9)	15 (18.1)	17 (20.5)	83 (100.0)	
	400-500만원 미만	14 (21.9)	26 (40.6)	11 (17.2)	13 (20.3)	64 (100.0)	
	500만원 이상	4 (19.0)	11 (52.4)	2 (9.5)	4 (19.0)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62 (31.0)	77 (38.5)	24 (12.0)	37 (18.5)	200 (100.0)	35.035***
	제주시 읍·면지역	18 (30.0)	23 (39.3)	7 (11.7)	12 (20.0)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12 (12.6)	40 (42.1)	33 (34.7)	10 (10.5)	95 (100.0)	

구분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개선점 ¹⁵⁾				합계	χ^2
		1	2	3	4		
	서귀포시 읍·면지역	9 (20.0)	23 (21.1)	7 (15.6)	6 (13.3)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1 (40.7)	11 (40.7)	3 (11.1)	2 (7.4)	27 (100.0)	4.864
	없다	90 (24.1)	152 (40.8)	68 (18.2)	63 (16.9)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8 (28.6)	11 (39.3)	1 (3.6)	8 (28.6)	28 (100.0)	6.370
	없다	93 (25.0)	152 (40.9)	70 (18.8)	57 (15.3)	372 (100.0)	

*p<.05, **p<.01, ***p<.001

4.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1) 의회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가계소득, 거주지부문을 통계를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62.9%)이 남성(39.4%)에 비해,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저소득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동지역 거주자(55.5%)가 읍·면지역 거주자(45.0%)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거주자(60.0%)가 동지역 거주자(42.1%)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아래의 번호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개선점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치의 변화, 2: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성 고정관념 탈피, 4: 여성지도자 발굴.

<표 4-2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위원의 진입에 대한 평가			합계	χ^2	
	부정적	보통	긍정적			
성별	여	8 (4.0)	67 (33.2)	127 (62.9)	202 (100.0)	22.080***
	남	12 (6.1)	108 (54.5)	78 (39.4)	198 (100.0)	
연령	20대	5 (6.1)	42 (51.2)	35 (42.7)	82 (100.0)	8.164
	30대	5 (5.6)	43 (48.3)	41 (46.1)	89 (100.0)	
	40대	4 (4.0)	38 (37.6)	59 (58.4)	101 (100.0)	
	50대	5 (5.7)	38 (43.7)	44 (50.6)	87 (100.0)	
	60대 이상	1 (2.4)	14 (34.1)	26 (63.4)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3 (9.4)	13 (40.6)	16 (50.0)	32 (100.0)	12.202
	고졸	7 (3.6)	100 (51.5)	87 (44.8)	194 (100.0)	
	전문대졸	3 (4.0)	30 (40.0)	42 (56.0)	75 (100.0)	
	대졸 이상	7 (7.1)	32 (32.7)	59 (60.2)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9 (10.6)	45 (52.9)	31 (36.5)	85 (100.0)	22.585**
	200-300만원 미만	2 (1.4)	67 (47.9)	71 (50.7)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3 (3.6)	32 (3.6)	48 (57.8)	83 (100.0)	
	400-500만원 미만	3 (4.7)	25 (39.1)	36 (56.3)	64 (100.0)	
	500만원 이상	3 (14.3)	5 (23.8)	13 (61.9)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13 (6.5)	76 (38.0)	111 (55.5)	200 (100.0)	14.990*
	제주시 읍·면지역	5 (8.3)	28 (46.7)	27 (45.0)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1 (1.1)	54 (56.8)	40 (42.1)	95 (100.0)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에 대한 평가			합계	x^2
		부정적	보통	긍정적		
	서귀포시 읍·면지역	1 (2.2)	17 (37.8)	27 (60.0)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 (3.7)	9 (33.3)	17 (63.0)	27 (100.0)	1.591
	없다	19 (5.1)	166 (44.5)	188 (50.4)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2 (7.1)	10 (35.7)	16 (57.1)	28 (100.0)	.925
	없다	18 (4.8)	165 (44.4)	189 (50.8)	372 (100.0)	

*p<.05, **p<.01, ***p<.001

2)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성별, 연령, 학력,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24.8%)이 남성(20.7%)에 비해,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일수록 고학력에 비해 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25.0%)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7.8%)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단위: 명(%)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합계	x^2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성별	여	50 (24.8)	10 (5.0)	142 (70.3)	202 (100.0)	8.405*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합계	x^2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남	41 (20.7)	26 (13.1)	131 (66.2)	198 (100.0)	
연령	20대	9 (11.0)	9 (11.0)	64 (78.0)	82 (100.0)	18.559*
	30대	16 (18.0)	11 (12.4)	62 (60.4)	89 (100.0)	
	40대	30 (29.7)	10 (9.9)	61 (60.4)	101 (100.0)	
	50대	21 (24.1)	5 (5.7)	61 (70.1)	87 (100.0)	
	60대 이상	15 (36.6)	1 (2.4)	25 (61.0)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6 (18.8)	1 (3.1)	25 (78.1)	32 (100.0)	17.584**
	고졸	33 (17.0)	16 (8.2)	145 (74.7)	194 (100.0)	
	전문대졸	28 (37.3)	9 (12.0)	38 (50.7)	75 (100.0)	
	대졸 이상	24 (24.5)	10 (10.2)	64 (65.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10 (11.8)	10 (11.8)	65 (76.5)	85 (100.0)	12.160
	200-300만원 미만	36 (25.7)	9 (6.4)	95 (67.9)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19 (22.9)	7 (8.4)	57 (68.7)	83 (100.0)	
	400-500만원 미만	20 (31.3)	8 (12.5)	36 (56.3)	64 (100.0)	
	500만원 이상	6 (28.6)	2 (9.5)	13 (61.9)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47 (23.5)	14 (7.0)	139 (69.5)	200 (100.0)	10.608
	제주시 읍·면지역	13 (21.7)	9 (15.0)	38 (63.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27 (28.4)	9 (9.5)	59 (62.1)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4 (8.9)	4 (8.9)	37 (82.2)	45 (100.0)	
정치	있다	8	5	14	27	4.658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합계	x^2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참여 경험	없다	(29.6)	(18.5)	(51.9)	(100.0)	9.538**
		83 (22.3)	31 (8.3)	259 (69.4)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6 (21.4)	7 (25.0)	15 (53.6)	28 (100.0)	
	없다	85 (22.8)	29 (7.8)	258 (69.4)	372 (100.0)	

*p<.05, **p<.01, ***p<.001

3) 여성의원 비례대표 인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의견보다 모르고 있다 의견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성별,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45.7%)이 여성(27.7%)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58.9%)이 타지역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시 읍·면지역(41.7%), 제주시 동지역(29.1%), 서귀포시 읍·면지역(15.6%)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55.6%)가 정치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35.2%)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비례대표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합계	x^2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성별	여	56 (27.7)	146 (72.3)	202 (100.0)	13.869***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위원이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합계	χ^2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남	90 (45.7)	107 (54.3)	197 (100.0)	
연령	20대	28 (34.1)	54 (65.9)	82 (100.0)	5.467
	30대	25 (28.1)	64 (71.9)	89 (100.0)	
	40대	39 (38.6)	62 (61.4)	101 (100.0)	
	50대	35 (40.7)	51 (59.3)	86 (100.0)	
	60대 이상	19 (46.3)	22 (53.7)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 (31.3)	22 (68.8)	32 (100.0)	1.001
	고졸	75 (38.7)	119 (61.3)	194 (100.0)	
	전문대졸	25 (33.8)	49 (66.2)	74 (100.0)	
	대졸 이상	36 (36.7)	62 (63.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4 (28.2)	61 (71.8)	85 (100.0)	6.103
	200-300만원 미만	49 (35.3)	90 (64.7)	139 (100.0)	
	300-400만원 미만	38 (45.8)	45 (54.2)	83 (100.0)	
	400-500만원 미만	26 (40.6)	38 (59.4)	64 (100.0)	
	500만원 이상	8 (38.1)	13 (61.9)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동지역	58 (29.1)	141 (70.9)	199 (100.0)	34.467***
	제주시 읍·면지역	25 (41.7)	35 (58.3)	60 (100.0)	
	서귀포시 동지역	56 (58.9)	39 (41.1)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7 (15.6)	38 (84.4)	45 (100.0)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위원이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합계	χ^2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정치 참여 경험	있다	15 (55.6)	12 (44.4)	27 (100.0)	4.489*
	없다	131 (35.2)	241 (64.8)	372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15 (53.6)	131 (35.3)	28 (100.0)	3.742
	없다	13 (46.4)	240 (64.7)	371 (100.0)	

*p<.05, **p<.01, ***p<.001

4)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발전에 대한 견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성별, 학력, 거주지, 정치참여 의향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73.8%)이 남성(44.4%)에 비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행수준 유지(27.3%) 또는 모르겠다(28.3%)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저학력군에 비해, 제주시 거주자일수록 서귀포 거주자에 비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확대되어야 된다는 응답(32.6%)보다 현행수준 유지(44.2%)해야 된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나 타지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75.0%)가 정치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56.5%)에 비해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3>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합계	x^2
		확대 해야	현행 수준 유지	축소 해야	모르 겠다		
성별	여	149 (73.8)	24 (11.9)	0 (0.0)	29 (14.4)	202 (100.0)	45.512***
	남	82 (41.4)	54 (27.3)	6 (3.0)	56 (28.3)	198 (100.0)	
연령	20대	42 (51.2)	14 (17.1)	3 (3.7)	23 (28.0)	82 (100.0)	15.983
	30대	54 (60.7)	14 (15.7)	2 (2.2)	19 (21.3)	89 (100.0)	
	40대	65 (64.4)	21 (20.8)	0 (0.0)	15 (14.9)	101 (100.0)	
	50대	44 (50.6)	23 (26.4)	0 (0.0)	20 (23.0)	87 (100.0)	
	60대 이상	26 (63.4)	6 (14.6)	1 (2.4)	8 (19.5)	41 (100.0)	
학력	중졸 이하	16 (50.0)	3 (9.4)	0 (0.0)	13 (40.6)	32 (100.0)	25.983**
	고졸	98 (50.5)	46 (23.7)	3 (1.5)	47 (24.2)	194 (100.0)	
	전문대졸	49 (65.3)	17 (22.7)	0 (0.0)	9 (12.0)	75 (100.0)	
	대졸 이상	68 (69.4)	12 (12.2)	3 (3.1)	15 (15.3)	98 (100.0)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40 (47.1)	15 (17.6)	2 (2.4)	28 (32.9)	85 (100.0)	20.343
	200-300만원 미만	78 (55.7)	35 (25.0)	1 (0.7)	26 (18.6)	140 (100.0)	
	300-400만원 미만	50 (60.2)	13 (15.7)	0 (0.0)	20 (24.1)	83 (100.0)	
	400-500만원 미만	44 (68.8)	11 (17.2)	2 (3.1)	7 (10.9)	64 (100.0)	
	500만원 이상	12 (57.1)	4 (19.0)	1 (4.8)	4 (19.0)	21 (100.0)	
거주 지	제주시	137 (68.5)	25 (12.5)	3 (1.5)	35 (17.5)	200 (100.0)	61.511***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38 (63.3)	7 (11.7)	2 (3.3)	13 (21.7)	60 (100.0)	

구분	향후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합계	χ^2	
	확대 해야	현행 수준 유지	축소 해야	모르 겠다			
	서귀포시 동지역	31 (32.6)	42 (44.2)	0 (0.0)	22 (23.2)	95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25 (55.6)	4 (8.9)	1 (2.2)	15 (33.3)	45 (100.0)	
정치 참여 경험	있다	20 (74.1)	2 (7.4)	1 (3.7)	4 (14.8)	27 (100.0)	5.009
	없다	211 (56.6)	76 (20.4)	5 (1.3)	81 (21.7)	373 (100.0)	
정치 참여 의향	있다	21 (75.0)	3 (10.7)	2 (7.1)	2 (7.1)	28 (100.0)	11.954**
	없다	210 (56.5)	75 (20.2)	4 (1.1)	83 (22.3)	372 (100.0)	

*p<.05, **p<.01, ***p<.001

제 2 절 가설 검증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치관심도 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9개 문항) 나타났고,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1개 문항)가 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서귀포 동지역 거주자일수록 정치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거주지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6개 문항) 나타났고, 성별(3개 문항), 학력(2개 문항), 가계소득(2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성별(4개 문항), 거주지(3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연령(1개 문항), 학력(2개 문항), 가계소득(1개 문항)에 따른 인식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 세부문항별 채택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거주 지
정치관심도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	○	○			○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 기 정도	○			○	○
	선거제도 관심 정도	○				○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가계 소득	거주 지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정도	○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정도		○		○	○
	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정도	○	○	○		○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참여 정도	○	○			○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 정도	○				○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정도	○			○	○
	투표 참여 정도	○	○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견해	○		○		○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				○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	○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			○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			○	○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	○	○		
	여성의원 비례대표직 인지 여부	○				○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		○		○

주) 가설이 채택된 경우, ○로 표시하였음

2. 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정치참여 여부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치관심도 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 중 8개 문항이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문항에서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도”,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참여 정도”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정도”에서는 정치참여 의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 정도”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7개의 세부문항 중 1개 문항만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문항에서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의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견해”,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는 원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문항 중 1개 문항만 정치참여 경험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문항에서 정치참여 의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의원이 비례대표직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참여 의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2. 「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 세부문항별 채택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5> 정치참여 여부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가설 검증

구분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	
정치관심도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	○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도	○	○
	선거제도 관심 정도	○	
	후보자 선거공약 관심 정도	○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 및 정당 지지 유도 정도	○	
	선거기간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정도	○	
	선거기간 정당모임 등 정치활동 정도	○	○
	정치의 국민이익을 위한 공평성 정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 정도		○
투표에 참여 정도	○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한 견해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		○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		

구분		정치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향
제주특별자치 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	여성의원 진입에 대한 평가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		○
	여성의원 비례대표직 인 지 여부	○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		○

주) 가설이 채택된 경우, ○로 표시하였음

제 3 절 면접조사(인터뷰) 결과

1. 인터뷰의 목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제주지역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여성이 정치분야에 진입할 때를 1.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와 2.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필요요소(마음가짐, 자격기준, 제도적 부문 등)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조사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실증 평가의 결과에 지역적인 특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정당인 중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면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에 참여를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조사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절차를 설명하다. 이러한 면접참여자 모집과정을 통해 최종 면접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전직의원 2명, 현직의원 4명, 정당인 7명으로 총 13명이다.

2. 질문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부문에 진입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필요요소 및 장애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조사에 따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4-26> 면접조사 질문내용

구분	질문문항
1.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 자격기준, 제도적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질문문항
	-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성이 정치에 도전을 하는 단계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 단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현직 여성의원과 여성 정당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여성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는 준비하지 않았고, 질문하고자 준비한 문항 외에 면접 도중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여 자료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사하는 방식이다(강혜규 외, 2010).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이며, 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2시간 정도이다. 또한 면접 조사를 수행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인터뷰 이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참여의사를 재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둘째, 인터뷰 자료를 기술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의 이름 대신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등의 부호로 표기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구술내용을 표기할 때에도 참여자 번호를 이용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발언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3.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면접대상자는 총 13명이며, 연령대는 50대 6명, 60대 이상 4명, 40대 2명, 30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직의원은 모두 6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현직의원은 3명이 50대, 1명이 40대로 나타났다. 정당인은 60대 이상 2명, 50대 3명, 40대 1명, 30대 1명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6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미표시 3명으로 나타났다.

<표 4-27> 서비스 공급기관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직업	소속 정당
연구참여자 1	60대 이상	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2	40대	현직의원	무소속
연구참여자 3	60대 이상	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4	60대 이상	정당인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5	50대	정당인	-
연구참여자 6	60대 이상	정당인	민주당
연구참여자 7	50대	정당인	민주당
연구참여자 8	30대	정당인	-
연구참여자 9	50대	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10	50대	현직의원	민주당
연구참여자 11	50대	현직의원	새누리당
연구참여자 12	50대	정당인	-
연구참여자 13	40대	정당인	새누리당

4. 인터뷰내용 분석 결과

1) 여성의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 자격기준, 제도적 부문)을 질문한 결과, 전·현직의원과 정당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의원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고자 할때는 특별한 자격기준보다는 헌신성, 비전 등을 강조한 반면, 정당인의 경우, 책임감과 사명감 및 역량,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여성은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정치자금 지원 및 할당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직의원의 경우, 학력, 경력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는 마인드와 명확한 비전 정립, 그리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직업군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당인의 경우에는 공정한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주변의 권유보다는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한 후보에게 공천을 해주어야 하며, 선거가 임박해서 공천하기 보다는 역량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8>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구분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전직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는 마음가짐 - 전문성과 헌신성 및 리더십과 역량 강화 필요 - 정치자금 지원, 할당제 강화
현직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라는 영역을 파악하고, 명확한 비전 정립 필요 - 학력, 경력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 -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소신과 철학 필요 - 특정 자격 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많은 경험과 경륜 필요 - 봉사라는 의식 중요 -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직업군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야 도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능함

구분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과 사명감 및 역량 필요 - 보편 타당한 후보에게 공천을 해주어야 함 - 역량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중요 - 정치활동을 바르게 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치 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 정치인 양성 필요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문(마음가짐, 자격기준, 제도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9>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 인터뷰내용

범주	인터뷰 내용
마음가짐	“정치는 봉사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연구참여자 9)
	“정치=도의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도의원’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명확한 비전을 정립하는게 중요합니다.” (연구참여자 2)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신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권유한다고 설봉리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6)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특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환경 등 일상생활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
자격기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학력, 경력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정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다면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연구참여자 10)

범주	인터뷰 내용
	<p>“여성으로서 정치는 생활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히 정당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지역이 참 일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7)</p> <p>“전문직종에서 일했던 직업군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와야 도정의 정책과 예산분배에 대하여 심도 깊은 감시, 견제를 할 수 있고 생산적인 대안제시가 가능합니다.” (연구참여자 9)</p> <p>“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여성 누구나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기준을 향상시켜 보편타당한 후보에게 공천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살아오면서 타의 귀감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6)</p>
제도적 부분	<p>“여성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출직 30%는 여성공천 할당이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당원들과 여성계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1)</p> <p>“각 정당이나 자치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나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한 여성 정치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7)</p> <p>“현재 공천제는 현역에게 유리하고 공천에서 남성중심으로 편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의무공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능성 있는 후보인 경우 우선 공천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6)</p> <p>“아직까지 여성정치참여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의 폭을 정당 혹은 공직선거법을 통하여 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10)</p>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전·현직의원
과 정당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의
원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고자 할때는 자금운용 능력(경제적 문제)을 큰 결

림들로 지적한 반면 정당인의 경우, 가족들의 지지 부족,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정치를 하고자 해도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가 미흡하고, 자금운용 능력과 조직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직의원은 여성의 정치역량에 대한 의구심 및 선입견, 기존의 남성 중심 정치문화,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정당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지지 부족, 남성중심 정치문화, 다양한 멘토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표 4-30>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구분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
전직의원	- 인지도 미흡 - 자금운용 능력, 조직력 부족
현직의원	- 여성의 정치역량에 대한 의구심 또는 선입견 - 기존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 문제 - 경제적 문제
정당인	- 가족들의 지지 부족 -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가부장적 사회분위기) - 학연, 지연, 혈연의 전통적 걸림돌 - 다양한 멘토의 부재

여성이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1>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인터뷰내용

범주	인터뷰 내용
남성중심 정치 문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로 인해 여성 스스로 정치영역에서 자기역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범주	인터뷰 내용
	<p>“우리나라는 오랜기간동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었고, 한 지역구의 대표를 여자로 보내는 데는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남성들이 여성에게 내어주는 것을 자존심의 큰 상처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4)</p> <p>“많이 나아지긴 하였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정치는 여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8)</p>
<p>가족들의 지지 부족</p>	<p>“남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육아, 자녀교육, 시부모 공양, 남편 뒷바라지 등 주부로서 할 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시스템은 여성이 정치분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연구참여자 4)</p> <p>“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합니다. 남성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데 비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의 허락, 특히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8)</p> <p>“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참여자 9)</p>
<p>경제적 문제</p>	<p>“남성들에 비해 선거기탁금 등 자금운용능력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연구참여자 1)</p> <p>“출마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과 연계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구참여자 7)</p> <p>“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연구참여자 11)</p>
<p>기타</p>	<p>“다양한 멘토의 부재, 동료 정치인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연구참여자 5)</p> <p>“평소에는 도움을 줄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출사표를 던지면 상대의 흠집을 내려고 하며, 이런 일에 특히 여성이 앞장서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6)(연구참여자 10)(연구참여자 11)</p>

범주	인터뷰 내용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순수한 여성은 할 일이 못된다는 일부 땡배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런 더러운 정치(때거리 정치, 권당 정치)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은 여성정치입니다.” (연구참여자 9)
	“지역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지지도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구도 분석을 해야하는데 조직력이 부족해요.” (연구참여자 3)(연구참여자 7)

2) 여성의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직력 미흡을 지적한 가운데, 전직의원과 정당인은 공통적으로 인지도 미흡, 설득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반면, 현직의원은 자신감 부족, 선거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인지도 미흡, 설득력 부족, 정당 차원의 지원 부족, 여성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을 지적하였고, 현직의원은 조직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능력 부족, 경험있는 멘토 부족, 자신감 부족, 선거운동원들의 적극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정당인의 경우, 대처능력 부족, 설득력 부족, 인지도 미흡, 남성중심 선거문화, 자금 동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표 4-32> 선거운동과정 문제점

구분	선거운동과정 문제점
전직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를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부족 -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대화법 등 연구 필요 - 설득력 부족 - 정당차원에서 지원 부족 - 여성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
현직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능력 부족 - 경험있는 멘토 부족 - 자신감 부족 - 선거운동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미흡

구분	선거운동과정 문제점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간 중에 벌어지는 비방에 대처능력 부족 - 설득력 부족 - 인지도 미흡 - 남성중심의 선거문화(술 권하는 사회 등) - 자금 동원 문제 - 조직력 문제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3>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점 인터뷰내용

범주	인터뷰 내용
조직력 부족	“선거에 필요한 조직을 구축하고, 참모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구참여자 2)
	“여성은 결혼과 함께 출생지를 떠나면서 친척, 초중고대학 동문들과 연락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아 조직을 구축하기가 어렵는데 비해,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조직을 꾸리기가 용이합니다.” (연구참여자 7)(연구참여자 8)
	“현실적으로 여성은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지역구에 선거하기에는 인지도, 조직,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인지도 미흡	“선거기간동안 만으로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인지도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7)
	“남성은 오랜기간 선거를 준비해온 경우가 많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끈끈한 커넥션을 형성해 놓아 공천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여성은 정치를 결심하는 시기도 대체로 늦고 준비 기간도 짧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연구참여자 8)

범주	인터뷰 내용
남성중심 선거문화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선거운동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여성단체들 역시 그동안 남성후보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후보를 돕거나 조직화하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서 선거출마자나 운동을 도와주는 이들이나 선거에 성공한다는 자신감이 모자랍니다.” (연구참여자 9)
	“술 권하는 분위기 등 남성 위주의 선거문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참여자 5)
기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 허위 사실 공포 및 비방에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연구참여자 4)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연구참여자 3)
	“돈 안쓰는 투명한 선거라고는 하지만 선거경비 등 돈이 많이 들고 자금조달부분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연구참여자 5)(연구참여자 13)
	“현실적으로 여성은 본인의 의지와 결정으로 지역구에 선거하기에는 인지도, 조직,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여성이라 약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으로 인해 선거운동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합니다.” (연구참여자 11)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정당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가운데, 전·현직의원, 정당인에 따라 다른 지원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선거전략 및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현직의원은 선거의 투명성 제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필요, 정당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및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였다. 정당인의 경우에는 정치 관계법 안내 등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 조성, 재정 지원,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여성 할당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4-34> 선거운동과정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문

구분	선거운동과정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문
전직의원	- 선거전략 지원 - 자금 지원
현직의원	-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 -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필요 - 정당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 정당차원에서 적극 지원
정당인	- 정치 관계법 안내 등 교육 훈련 - 인적 네트워크 조성 - 재정 지원 - 여성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 여성 할당 강화

여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5>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문 인터뷰내용

범주	인터뷰 내용
정당 차원의 지원	“정당보조금 등 여성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적 배려)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2)
	“선거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선거운동 관련 사무실, 선거운동차량, 자원봉사자 및 선거운동요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4)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선출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천시 여성후보가 원하는 지역에 반드시 공천을 해준다던가, 여성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배 여성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0)

범주	인터뷰 내용
기타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가족, 선거 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변화와 승리의 적극적이고 신바람 나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4)
	“비례대표처럼 지역에서 여성이 일정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8)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지원하고 여성단체가 조직적으로 여성 풀뿌리 일꾼을 만들겠다는 공감형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참여자 9)
	“실제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2)
	“여성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과 여성단체, 정당 등 각계 공동 대응 및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3)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직의원, 현직의원, 정당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직의원은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 필요, 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 사회전반의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개선 등을 지적한 반면, 현직의원은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교육,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 정당별 여성위원회 활성화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정당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사회분위기 조성, 지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필요, 여성 단체와의 연대 필요, 선배 여성 정치인들의 사회공헌, 보육의 공공화 및 노인 돌봄의 사회화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표 4-36>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전직의원	-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 필요 - 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 - 조직력, 재정력 지원 - 사회전반적인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

구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현직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교육 -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 - 여성 정치관련 전문성 제고 교육 - 정당별 여성위원회의 활성화 필요 - 연대를 통해 여성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 - 지속적으로 여성 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 전직 정치인-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 - 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 - 선배 여성정치인들의 사회공헌 - 여성 스스로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보육의 공공화, 노인 돌봄의 사회화 등 필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37>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인터뷰내용

범주	인터뷰 내용
공천여건 조성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이 중요한데, 남성후보자와 경선하지 않고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당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
	“여성은 결혼과 함께 출생지를 떠나면서 친척, 초중고대학 동문들과 연락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아 조직을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비해,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조직을 꾸리기가 용이합니다.” (연구참여자 7)(연구참여자 8)
	“여성정치참여의 걸림돌로 여겨져 온 ‘돈과 조직의 부족’ 과 ‘정당의 지원 부족’ 등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필요합니다.(연구참여자 13)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여성이 여성의 편에 서서, 정치기반 확대를 위한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2)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 생활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감대 확산운동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9)(연구참여자 12)

범주	인터뷰 내용
여성의 정치 세력화	“도민과 정당, 여성계 각계각층 결집된 정책적 협조로 조직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3)
	“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2)(연구참여자 4)
	“각 정당, 여성 등을 총망라한 결집할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를 통한 후보 발굴 및 선거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3)
교육 필요	“여성 관련 교육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여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4)
	“여성 정치 관련 전문성 제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2)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6)
기타	“여성성에 기초한 정치 서비스 정신과 남성과 다른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정치를 통한 주민 밀착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평상시의 의정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5)(연구참여자 7)
	“선배 여성 정치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7)(연구참여자 12)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화, 아동 돌봄의 공공화, 노인 돌봄의 사회화 등이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8)(연구참여자 12)
	“여성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임을 확산할 수 있는 언론매체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연구참여자 10)
“여성후보자 스스로가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연구참여자 13)	

제 4 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조사 결과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차원과 사회·문화의식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1. 제도적 차원

첫째,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50% 및 홀수번호 부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역구 30% 여성할당은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29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만 여성이 공천되었고, 새누리당도 2개 선거구만 여성이 공천되었다. 이는 여성 공천 비율이 전체 선거구의 10%도 안되는 수준으로 여성할당 노력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의 경우 각 정당별로 29개 선거구의 30%인 8-9개 선거구에서는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가칭) ‘여성정치인 육성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으로 자금력 부족과 정당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총수의 5%이상을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지방선거에 벤치마킹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여성정치인 육성펀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여성 리더 발굴 및 교육, 선거자금 지원, 전략 지원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동반선출제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녀동반선출제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제안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초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

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 선거구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는 남성 후보 1인과 여성후보 1인에게 각각 투표하고 다수를 얻은 남녀후보가 각각 선출되게 된다. 이 법안을 참고하여 제주지역은 지역구에서 적용하여 실효성을 시험해보고, 특별법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비율이 지역대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얼길임, 2008).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999명 중 선출직 2,513명, 비례 375명으로 14.9%, 광역의회 전체 733명 중 선출직 655명, 비례 78명(11.9%)을 시행하여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향후 여성이 선출직으로서 의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비례할당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공천심사과정을 투명화하고 합리화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문화의식적 차원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및 차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인식조사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으로 권리와 의무라는 응답과 기존의 정치가 남성 중심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건은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조사 결과, 기존 정치문화의 순수하지 못한 패거리 정치, 권당 정치 등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여성정치라고 지적하였다. 즉 여성 특유의 깨끗하고 대화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소통의 정치방식, 섬세한 주민밀착형 생활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지방정치참

여가 시대적 요구임을 홍보하고, 여성정치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전·현직 여성의원의 사회공헌 확대 및 의정활동 이슈화가 필요하다. 인식조사 결과, 여성의원의 의회 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은 반면, 의정활동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 그리고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배 여성정치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전직 정치인들이 정치 희망생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여성도의원들이 사회공헌 확대,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여성정치인들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면접조사 결과, 여성이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조직과 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선출직 여성의원이 전무하여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남성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여성 후보자들은 조직력에서 남성의원에게 뒤쳐질 수 밖에 없고, 선거전략 수립, 참모진 구성 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성숙된 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현직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실행해간다면 여성의 정치참여 외연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여성정치인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각 정당 중심으로 지속적인 여성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운영해야 한다. 일반 선거 관련 법률 이해, 선거전략의 중요성, 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직 정치인과 정치 희망생들과의 멘토-멘티 운동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연장선이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선배 여성정치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시스템이 필요하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선거를 오랜기간 준비할 수 있지만 여성은 정치를 직

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통로, 인적네트워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멘토링 운동을 통해 정치에 관심있는 정치 희망생들이 정치분야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실증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관심도 부문에서는 10개의 세부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성별, 거주지, 정치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매체의 정치면 관심 정도”는 성별($p=.000$), 연령($p=.040$), 거주지($p=.029$), 정치참여 경험($p=.02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평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성별($p=.000$), 가계소득($p=.048$), 거주지($p=.000$), 정치참여 경험($p=.010$), 정치참여 의향($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성별($p=.000$), 거주지($p=.028$), 정치참여 경험($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 정도”는 성별($p=.002$), 정치참여 경험($p=.20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투표 유도한 경험 정도”는 연령($p=.003$), 가계소득($p=.021$), 거주지($p=.000$), 정치참여 경험($p=.03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일한 경험 정도”는 성별($p=.005$), 연령($p=.001$), 학력($p=.005$), 거주지($p=.001$), 정치참여 경험($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거기간 정당 및 정치적 활동 가입 정도”는 성별($p=.001$), 연령($p=.029$), 거주지($p=.029$), 정치참여 경험($p=.000$), 정치참여 의향($p=.04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지 정도”는 성별($p=.000$), 거주지($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말에 대한 신뢰성 정도”는 성별($p=.000$), 가계소득($p=.001$), 거주지($p=.000$), 정치참여 의향($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투표 참여에 대한 정도”는 성별($p=.003$), 연령($p=.023$), 정치참여 경험($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인식을 x^2 검증한 결과, “여성의 정치 진출에 관한 견해”는 거주지가 $p<.001$ 수준에서, 성별은 $p<.01$ 수준에서, 학력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후보자 지지 이유”에 대해서는 학력변수만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p<.001$ 수준에서, 정치참여 경험은 $p<.01$ 수준에서, 성별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영역 소외에 대한 견해”는 가계소득과 거주지가 $p<.01$ 수준에서, 정치참여 의향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는 원인”은 거주지 변수만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성별이 $p<.001$ 수준에서, 가계소득과 거주지 및 정치참여 의향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점”은 거주지 변수만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 인식을 x^2 검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에 대한 평가”는 성별 $p<.001$ 수준에서, 가계소득 $p<.01$ 수준에서, 거주지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력과 정치참여 의향이 $p<.01$ 수준에서, 성별과 연령변수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원이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인 것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거주지변수가 $p<.001$ 수준에서, 정치참여 경험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는 성별과 거주지 변수가 $p<.001$ 수준에서, 학력과 정치참여 의향변수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필요요소를 질문한 결과, 전직의원은 마음가짐, 전문성, 정치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직의원은 명확한

비전 정립, 공익을 우선시하는 마인드 등 소신과 철학이 필요하고, 특정 자격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많은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당인의 경우,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며, 보편 타당한 후보에게 공정한 공천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 역량있는 여성 지도자의 사전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정치에 뜻을 가지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전직의원은 인지도 미흡과 자금운용능력 및 조직력 부족을 지적하였고, 현직의원의 경우 여성의 정치역량에 대한 의구심 또는 선입견, 기존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경제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정당인의 경우, 가족들의 지지 부족, 다양한 멘토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선거운동 과정상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전직의원은 자기를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대화법, 말투 등의 연구 필요, 정당차원에서 지원 부족을 지적하였고, 현직의원은 조직 구축 및 운용능력 부족, 자신감 부족, 선거운동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정당인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 벌어지는 비방에 대처능력 부족, 인지도 미흡, 남성중심의 선거문화, 자금동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넷째, 여성이 정치에 도전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원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전직의원은 선거전략 지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직의원은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필요, 정당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당인의 경우 정치 관계법 안내 등 교육 훈련 필요, 재정 지원, 여성 할당 강화, 여성정치인 양성과정 운영 등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질문한 결과, 전직의원은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 필요, 여성의 정치세력화 필요, 사회전반적인 남성중심 정치문화 개선을 제안하였고, 현직의원은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교육, 여성 정치선배 멘토링, 여성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정당인의 경우, 여성 정치참여 필요성과 분위기 조성, 지속적인 여성 정치

인 양성과정 운영, 여성단체와의 연대 필요, 보육의 공공화, 노인 돌봄의 사회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이며, 비례대표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활성화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도민대상의 인식조사와 전문가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적 범위를 제주지역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전국차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여성 정치참여의 장애요인 및 필요요소도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전문가조사시 여성의원 및 여성정당인 소수만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조사결과는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전문가조사시 그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전체인원을 30명 수준으로 확보하여 전문가의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도민의 직업적 분류를 전문직, 공무원, 학생, 자영업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혜규 외(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실·김혜연(2005),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3), 45-68.

김원홍·장영아·김민정·박의경(2001), ASEM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윤희(1999), 우리나라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양(1998),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휘(2002),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홍·장혜경·황경임·배호중(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희준(1993), 「한국여성의 의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고찰」, 서울:한국의회발전연구소, 29.

노형진(2005), SPSS 12.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

박선영(2007),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옥순(2010),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연구: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혜자(2000),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와 새 시대의 역할」, 『한국유권자연맹』, 39-55.

- 백승현(2000), 「시민사회와 국회」, 의정연구 vol. 9, 8-25.
- 소광희.(2002),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봉숙·조기숙(1995), 「지방의회와 여성 엘리트」, 서울:집문당, 20.
- 신정현.(2000), 「비교정치론-이론·대상·사례」, 서울:법문사, 282.
- 안병만.(1971),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치발전」,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 412.
- 안진희(2010),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길임.(2007), ‘지방자치 시대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희(2010),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삼영(1991),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의원의 역할」, 관동대출판부, 9.
- 윤원수·오윤정·양덕순(2013), 「여성공무원의 조직문화 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지역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2. 291-317.
- 윤정석(1991),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선거제도」, 한국여성문화정치연구소 제6회 학술세미나 보고서, 26.
- 이기우(1995),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415.
- 이범준 외(2004), 「21세기 정치와 여성」, 서울:나남출판사, 403-405.
- 이병화(1994), 「지방의회선거와 여성당선보장제도」, 지방의정, 26권, 33.
- 이승희(1993), 「한국의 정치현실과 여성의 정치참여」, 한국유권자연맹, 10.
- 이영애(2007), 「현대 여성학의 이해」, 서울:법문사, 274-276.
- 이은재(2001), 「여성의 지방의회진출 제고방안」, 21세기 여성정치연합 토론회, 55.

이진(200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호(1995),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정치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혜자(2003), '지방자치단체하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성자(1994), 「지방정치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한국의 과제와 발전 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장정남(1995),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옥(200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정치학회, 37(1), 135-160.

정미선(2010), 여성의 지역정치참여에 관한 광주·전남 기초의원의 정치의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은이(2003),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길(1991),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210.

정혜숙(2007), '여성의 정치참여와 국민의식의 연관성-여성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15(4), 103-125.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조갑련(2013), 선거제도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방선거결과 분석 및 현직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현수(2005), 여성의 지방의정 참여 확대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최종두(1985), 「민주정치와 선거론」, 서울:태창출판사, 1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여성 정치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2014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여성현안포럼 자료집

한진희.(2010),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아란·서복경(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 1(1), 99-128.

2. 국외문헌

Lester W, Milbrath(1965). Political Participation : How and What the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ho : Rand McNally, p.1.

Sidney verba and Norman H.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p.2.

Samuel P. Huntington and John .M .Nelson(1977). No Easy Choice : Political Participant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5.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females in local politics

-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For a long time in Korea, males have been the dominant presence in politics, and it is still seemingly difficult for females to enter the arena with numerous obstacles in their way. Even after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local self-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females in politics, only a minority of the participants in local councils are females. In case of Jeju region, with the introduc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wide area council replaced basic local council. Due to this special circumstance, opportunity of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relatively narrow compared to other regions. It contradicts with Jeju women's independent character and their expected roles. Therefore,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female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conducted awareness surveys targeting province residents and interviews targeting experts to suggest measures to activate female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he awareness surveys investigat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society, level of interest in politics following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of Korean females, and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of females living in Jeju. The interviews with experts analyzed topics such as necessary factors for a

female to enter the field of politics, obstacles and measures to activate particip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out of the 10 factors, gender, residence, and experi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noticeable differences in recognition. Gender and reside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9 questions, while experi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8 questions. On the other hand, education showed the smallest difference in recognition.

Second, in the field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of Korean females, out of 7 factors the most remarkable difference in recognition was residence,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6 questions. Also, gender(3 questions), and education(2 questions), household income(2 questions) also showed partial difference in recognition.

Third, in the field of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of females living in Jeju, out of 4 factors gender and residence showed the more remarkable difference in recognition with gender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4 questions and residence in 3. Education(2 questions), intent to participate in politics(2 questions) also showed partial difference in recognition.

Fourth, through the interviews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answered that the necessary factors for a female to enter the field of politics included professionalism, political funds and a philosophical outlook that gave priority to public office. On the other hand, female party members answered that the necessary factors included fair nomination and the discovery of a capable female leader.

Fifth, through the interviews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answered that the obstacles a women faces when participating in politics included

financing capabilities and the lacking organizational power of the existing male-focused political culture, while female party members answered lack of support from family and absence of diverse mentors.

Sixth, through the interviews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and female party members answered the measures that are need to activate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swered that the necessity and creation of an atmosphere for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also suggested the creation of conditions to nominate female candidates, improvement of the male-centered political culture, and availability of female political figure mentors. Female party members suggested continuous operation of a female politician training program, the necessity of solidarity with women's organizations, and public conversion of childcare.

Through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terviews, measure to activate female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uggested by being classified into institutional factors and social-cultural recognition factors. For institutional factors, first, it is necessary for a system for obligatory nomination of female candidates. Second, a fund needs to be created for the training of female politicians. Third, male-female accompanied election must be introduced. Fourt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ust be expanded. As for social-cultural recognition factors, first, the necessity for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ifferentiation must be publicized. Second, the expansion of social contribution and parliamentary politics by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must become a bigger issue. Third, political influence of women must grow. Fourth, Training for female politicians is needed. Fifth, there must be a mentor-mentee program for past politicians and people who wish to become politicians to meet.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actual proof and interview investigation, and factors that are hard to understand through proof evaluation such as necessary factors for a female to participate in politics, 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ith past and present congresswomen who have experience in or have intent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ed detailed and realistic measures for development.

Key Words: Females, Local Council, Participation of politics, Measures of activation

ID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자료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문항에는 맞고 틀린 정답이 없으므로 오직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현정화

(문의사항: ye3224@hanmail.net, ☎ 741-1962)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

정치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서 정치면을 자주 보십니까?					
2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					
3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4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심을 가 지고 있습니까?					
5	선거기간에 어떤 후보자나 정당 을 위하여 투표하도록 주민들에 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6	선거기간에 한 정당이나 한 후보자 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7	선거기간에 정당모임,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8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치가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나라는 18대 대통령에 여성이 당선되는 등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긍정적이다.
④ 매우 긍정적이다. ⑤ 관심없다.

11-1. (11번 문항에서 ③, ④ 응답자만) 여성후보를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 ②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 ③ 정치부문도 여성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지금까지는 남성의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2. 귀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권리와 의무이므로
- ②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므로
- ③ 생활정치의 등장이므로
- ④ 남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13. 귀하는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13-1. (13번의 ①번 응답자만) 여성이 정치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 ② 여성출마자의 제약
- ③ 성인지적 고정관념
- ④ 여성후보의 정치역량 부족

14. 귀하는 최근 정치영역에 실시되고 있는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15. 귀하는 여성이 정치영역에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① 여성정치의 변화 ② 사회적 분위기 조성
- ③ 성고정관념 탈피 ④ 여성 지도자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 항목에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여성의원의 진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 ④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17.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원원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8.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원원 모두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19. 귀하는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확대되어야 한다. ②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축소되어야 한다. ④ 모르겠다.

ID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면접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현정화입니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자료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현정화

(문의사항: ye3224@hanmail.net, ☎ 741-1962)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

